

# 소학생

★ 현상 당선작문 동요 특집 ★

☆ 69호 ☆



아협 발행 264

7 월치

편지는 어떻게  
배달이  
됩니까?



취집  
(取集)



차립준비  
(差立準備)



날인  
(捺印)



추린다

발송  
(發送)



체송  
(遞送)



배달



도착구분  
(到着區分)



# 소학생

4282년 7월 1일 발행

69 호 7 월차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부이달의 메모★

7월4일...아메리카 독립 기념일(서기 1776년)

7월7일...소서(小暑)

7월9일...스위스 독립 기념일(서기 1886년)

7월14일...이준(李儁) 열사 43주년기 (은=이준선생은 왜놈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호오랜드 헤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들어가, 우리 나라 독립을 부르짖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배를 갈라 여러 외국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7월19일...초복(初伏)

7월23일...대서(大暑)



그림 • 한 동 려

## ☆차 례☆

- 특초 • 한밤자근.....권 태웅 (35)
- 특초 • 글.....한 인련 (27)
- 소설 • 아름다운 새벽.....열 홍섭 (26)
- 소설 • 하얀꽃매.....정 인태 (32)
- 그림동화 • 피노키오.....작 은들 (46)

### ★네번째 아침 현상★

동요 • 작품 당선 작품 발표(5)

#### 아주신 선생님 발품

- 산악성화 중대간 재료.....지 유 (18)
- 산악인이는 모두 시인.....이 병기 (19)
- 산악경마를 그대로.....이 회승 (20)

- ☆너른 세계를 가지자.....박 영중 (22)
- ☆세소리와 남의소리.....윤 석중 (23)
- ☆어떤 작문이 떨어졌나.....조 풍연 (23)
- 우리나라 공부.....조 유만 (31)
- 중국 옛얘기.....청 사 (42)
- 파과 질문.....(44)
- 몸을 튼튼히 하는 줄넘기.....반 은섭 (48)
- 떨어뜨린 돈주머니.....유 함숙 (50)

- 동물교실 • 코끼리아사기.....최 명환 (45)
- 뒷길장 설명.....(36)
- 교과 피와.....(38)
- 동요를 읽고 나서.....박 영중 (52)

- 소학생 작품.....(52)
- 연지는 어떻게 배말피나?.....(2)
- 애독자 아홉 상마기 글씨.....(43)
- 5월차 애독자 아홉 상마기 발표.....(51)
- 최희 박사.....(51) ★ 김말 박사.....(30)
- 소학생 구락부.....(54)
- 안들고 나서.....(54)

#### ☆그림 그리심 문☆

- 정 현웅 • 김 의환 • 김 기평
- 임 동근 • 조 병택 • 최 수현
- 한 동 려
- 정창 • 김 규택



☆ 동 요 ☆

특 등	평속에 누가 있나봐.....차	중 경
우 등	1, 아기의 잠 .....	이 경 퇴
	2, 샘불.....	여 재 송
	3, 종이 비행기 .....	권 민 수
	4, 팻뱃줄.....	조 성 회
	5, 소.....	이 영 자
입 선	1, 아버지.....	김 형 태
	2, 연자방아.....	조 숙 녀
	3, 색시효롱.....	이 영 모
	4, 나의 가방.....	이 장 회
	5, 폐지막.....	신 상 용
	6, 개구리.....	서 익 원
	7, 흙터가는 물 .....	권 혁 조
	8, 산고개.....	정 부 영
	9, 설날 그믐날 밤.....	이 현 영
	10, 우리 할아버지 .....	박 성 회
	11, 소꿉놀이.....	유 금 자
	12, 팽이치기.....	김 순 민

☆ 작 문 ☆

우 등	1, 후원회비.....	김 단 천
	2, 아버지를 찾아서 .....	유 진 영
	3, 제비.....	변 북 배
업 선	1, 새책.....	홍 봉 석
	2, 참새.....	박 경 회
	3, 누나의 졸업 .....	백 병 기
	4, 우리 동생 불시내.....	윤 석 권
	5, 통신부.....	이 응 속
	6, 새금과 어머니 .....	채 남 순

현상 당선 작품 특집을 꾸미며

이번 작품 모집에는 마감날인 4월 20일  
까지에, 동요 9007편, 작문 7,523편이라는 많  
은 작품이 들어왔으며, 눈발만큼 훌륭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요 18편과 작문 9편을 심사원  
어머 선생님들이 뽑아 주셨는데, 우리는 "소학  
생"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에 모두 실기  
로 하였습니다.

어디가 잘되었나 어디서 뽑혔나, 끌어주신  
선생님들의 말씀과 아울러, 몇차례이고 잘 읽  
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모집에는  
더욱 좋은 작품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뽑아 주신 선생님 ★

정 지 용 • 어 병 기  
어 회 승 • 박 영 종  
윤 석 중 • 조 풍 연

동요 • 작문 당선 작품

동요

☆ 특 등 ☆

땅속에 누가 있나봐

서울 정충 국민 학교 5년 차 중 경

땅속엔 땅속엔 누가 있나봐,  
손가락으로 쓰옥 올리미나봐  
쓰옥 목단꽃 새싹이 나온다.  
쓰옥 할미꽃 새싹이 나온다.

땅속엔 땅속엔 누가 있나봐,  
커다란 솔을 걸고 물품이나봐,  
모락모락 아지랑이 김이 나온다.



동요·작문 당선 작품

## 우등 ① 아기의 잠

강원도 춘천 국민 학교 4년

### 이 경 희

로실로실 어여쁜 우리 아가는,  
젓먹다 꼬박꼬박 잠이 들며는,  
꿈 속에서 엄마 젓 그냥 빨지요.

방글방글 어여쁜 우리 아가는,  
웃고 놀다 소르르 잠이 들며는,  
꿈 속에서 좋아서 그냥 웃지요.

칭얼대도 어여쁜 우리 아가는,  
울다가 꼬박꼬박 잠이 들며는,  
꿈 속에서 서러워 그냥 읊니다.



8



## 우등 ② 샘 물

서울 영희 국민 학교 5년

### 이 재 송

졸졸졸 나오는 샘물은  
왜 나오나?  
땅 속이 캄캄해  
햇볕 보러 나오나?



동요·작문 당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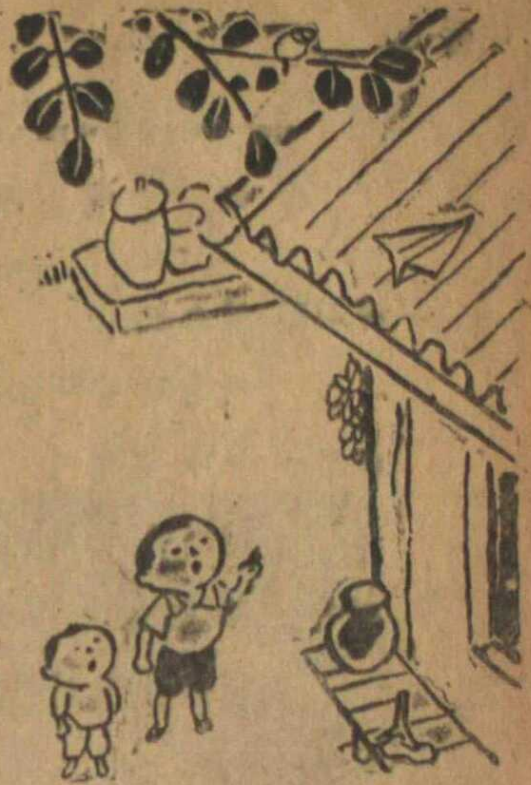
우등 ③ 종이 비행기

서울 남산 국민 학교 4년

권 민 수

참새야 참새야 예쁜 참새야,  
지붕에 올라간 종이 비행기,  
뾰족한 네임으로 꼭 물어서,  
이리로 나한테로  
떨어뜨려 다고.

바람아 바람아 세게 불어라,  
지붕에 올라간 종이 비행기,  
기운센 네임으로 꼭 불어서,  
이리로 너플너플  
떨어뜨려 다고.



우등 ④ 빨랫줄

인천 장영 국민 학교 3년

조 성 희



우리집 앞마당에 빨랫줄은요,  
언제나 마른 옷을 벗어 두고요,  
젖은 옷만 주섬주섬 좇어 입지요.  
바람 불면 무서워서 오르르 떨고,  
밤이면 저 혼자서 놀고 있어요.

동요·작문 당선 작품

우동 ㉠

소

인천 세민 국민 학교 3년

이 영 자

우리집 암소는  
 마음이 순해요.  
 네살배기 내 동생이  
 이러이러 하며는,  
 쳐다란 두 눈을  
 꿈벅꿈벅 하면서  
 일어나지요.



입선 ㉠ 아 버 지

경남 삼천포 용산 국민 학교 6년

김 형 래

눈바람 사납던 겨울 밤중에,  
 아버지는 오셨지 또 떠나셨지.  
 오면 동안 못뵈은 아버지 얼굴,  
 자나 깨나 그리며 살아 왔었지.

거리마다 태극기 풀아지는 날,  
 아버지는 오셨다 또 떠나셨지.  
 아버지가 주고가신 넓은 기폭을,  
 높이 높이 달고서 또 기다리저.

입선 ㉡ 연 자 방 아

경기 연백군 흥천 국민 학교 5년

조 속 배

연자방앗간에도  
 봄이 왔습니다.

새살 먹은 송아지를 풀아매자  
 처음으로 멩에를 메었습니다.

송아지는 머리를 내두르고  
 정충정충 길길이 뻗니다.



입선 ③ 색시 호롱

서울 경운 국민 학교 1년

이 영 로

까불까불 호롱불  
자칫하면 끄겠네  
입김으로 끄겠네  
잘 모서자 호롱불  
색시 호롱불.



입선 ④ 나의 가방

인천 서림 국민 학교 3년

이 장 희

알랑달랑 내 등에 매달린 가방,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를 할 때,  
고맙 고맙 따라서 인사하고요,  
출방출방 학교까지 업혀 가지요.



입선 ⑤ 돼지 막

경남 함양군 병곡 국민 학교 4년

신 상 용

산 밑에 외로이 있는 돼지막,  
작년 가을에  
나타를 지키던 막,  
지금은 다 허물어져  
나무토막만 남아 있어요.]

입선 ⑥ 개구리

경기 수원군 성호 국민 학교 3년

서 의 원

커다란 눈을 멀뭇멀뭇  
때 버티고 앉은 풀 우습기도 해요.  
부엌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어요.]



입선 ⑦ 흘러가는 물

서울 창진 국민 학교 5년

권 혁 조

개울은 냇물로 가고싶어서,  
낮이나 밤이나 흘러갑니다.

냇물은 강으로 가고싶어서,  
낮이나 밤이나 흘러갑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고싶어서,  
낮이나 밤이나 흘러갑니다.]

동요·작문 당선 작품

입선 ⑨ 산 고 개

서울 북성 국민 학교 5년

정 부 영

산고개 꼬불꼬불 외줄기 길은,  
순이하고 나하고 학교가는 길.

산고개 꼬불꼬불 외줄기 길은,  
힘찬 바람 성성하고 지나가는 길

산고개 꼬불꼬불 외줄기 길은,  
순이하고 나하고 집에 가는 길.

입선 ⑩ 설달 그믐날 밤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 5년

이 현 영

지난 해 다 가던 그믐날 밤에,  
우리들이 모두 다 잠들었을 때,  
어머니는 혼자서 우셨답니다.

아버지 사진을 내놓으시고,  
내 동생 머리도 쓰다듬으며,  
가만히 어머니는 우셨답니다.

어머니가 왜 우는지 나는 알면서,  
이불을 뜨고서 자는 체하고,  
나도 나도 가만히 울었답니다.

동요·작문 당선 작품

입선 ⑪ 우리 할아버지

충북 청주 근동 국민 학교 4년

박 성 희

할아버지 때때때때 물걸어 오실 땐,  
찰랑찰랑 통의 물이 증을 줍니다.

할아버지 때때때때 물걸어 오실 땐,  
줄줄줄줄 밑에서 기차질 만듭니다.



입선 ⑫ 소 팝 놀 이

개성 칠곡 국민 학교 2년

유 근 자

나는 과자를 팔고,  
영희는 떡을 팔고,  
세호는 담배장사를 합니다.

썸바기 과자는 쓰다고 안팔리고,  
썩떡은 쉬어서 안팔리고,  
비들가지 양담배는 가짜라고 안사잡니다.

입선 ⑬ 팽 이 치 기

서울 흥인 국민 학교 2년

김 순 민

팽이 치기 재미난다 췌췌췌,  
뽕글뽕글 뽕글뽕글 췌췌췌.

힘껏 힘껏 치자 췌췌췌,  
누구 것이 이기나 췌췌췌.

# 작문

## 우동 ① 후원회비

충북 제천군 봉양 국민 학교 5년

김 단 천

어느 토요일 날 조퇴 때, 교장 선생님께서 "후원회비를 죄다 가져오는 반에는 큰 공을 사다 주겠다." 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종일토록 공부를 못했다. 동무들은 저렇게 "월요일까지 다 가져오자"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우선 저녁거리가 없는 형편이니 더구나 돈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매일 같이 사기 그릇을 광주리에다 담아 이고 팔러 다니시는 어머니께, 잠마 어떻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내 학비들은 벌어 볼려도, 어린 동생들을 보아야 함으로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후원회비를 안내도 아니 되겠다.

그때 결국은 안나오는 말을 간신히 어머니께



그런 사연을 여쭙어 보았다.

어머님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고생하는데, 학비를 왜 늦게 내겠니. 내일 그릇이 팔리거든 공주마."

고 승낙하셨다. 나는 어떻게든 고맙고 기쁜저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어머님은 그 이튿날로 그릇을 팔러 가셨는데, 어린 동생은 젖을 달라고 울고 야단하지마는, 어머니 안오셔서 할 수 없이 사탕을 물에 타서 먹어도 안받아 먹고 울어서, 나도 같이 울고만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동생은 어머니 들어 앉으시는걸 보고 엉금엉금 기어 오르더니, 선웃음을 띄우며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린 동생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한바탕 웃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내 후원회비를 갖다 드렸는데, 어제는 동생 후원회비자 모자라서, 또 그릇을 한 광주리 가지고 팔러 가시는 것을 보고 나는 학교에 갔다. 두시간 공부하고 세째 시간 공부 준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바빠 뛰어 와 내 이름을 불러서 나갔더니, 어머니가 그릇 팔러 가셨다 오시다가, 거리에서 자빠져서 손목이 붙어졌으니 빨리 가 보라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선도 못시고 울면서 빨리 뛰어가 본즉, 어머니 손은 벌써 퉁퉁 부었는데, 의원이 동침으로 찌시는데, 세까만 피가 탁 흘러내릴 때 나는 앞이 캄캄하였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어머니를 업고 가서서 약을 해서 발타 주시고 가셨다. 어머니는 아픈 것도 생각지 않고, "너희들 후원회비는 어떻게나" 하시면서 울으실 때, 나도 한없이 울었다.

어머님 손목은 암만 약을 하여도 시언하지 않다. 어머니 손목은 언제나 또 다시 나오실까.

동요 · 작문 당천 작품

## 우등 ② 아버지를 찾아서

진북 부안군 전서 국민 학교 5년

유진영

남원군 수지 지서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소식을 몰라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매일 같이 걱정하십니다. 나도 속으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으나, 학교 다니느라고 찾아 갈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직구는 나 때놓으면 3학년 동생밖에 남자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선생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얻어, 아버지를 찾아 가 볼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울 선생님을 찾아 가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대단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오랫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꽤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휴가를 얻은 나는 어머니가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도 환권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밥 먹고 해가 저물도록 걸은 것이 80리 떨어진 신태인까지 갔었습니다. 해는 벌써 쉰쉰 넘어가는데, 길을 모르는 나는 거리에서 헤매다가 저물어, 하는 수 없이 지서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남원 가신 뒤로 소식이 없어서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고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마을 좋은 순경 한분이 “그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자기는 지서

숙직실에 와서 자라는 고마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저녁을 열어 먹고 숙직실에 가서 피곤한 몸을 편히 쉬었습니다.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순경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또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태인에서 약 40리 떨어진 김제군 금구까지 걸었을 때, 한낮 절반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굶은지라 배가 고파서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근방 동네에 들어가 밥을 열어 먹고 또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신작로 건고개를 넘어서니, 전주 시가가 보였습니다. 나는 없는 기운을 찬층 내어 삼촌이 다니고 있는 전주 공업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지도 않고 구경도 않은지라, 어디로 가야 좋을지 주저하고 있는 판에, 어떤 아이 하나가 바로 뒤에 따라오므로, “공업 학교가 어느쪽에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애가 가르쳐 주는데로 공업 학교에 찾아 갔으나, 생도 수가 많고 의복이 똑 같아서, 누가 누구지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둘러 보다가, 마침 전서 학교를 졸업한 오경근군을 만나, “삼촌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뒤이간 오군은 급시에 삼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삼촌을 만나니 눈물이 막 나와서, 눈물을 감추려고, 체모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어느 틈에 보았는지 우지말라고 달래었습니다.

그날은 삼촌 하숙집에서 쉬고, 이튿날 토요일



동요 · 작문 당선 작품

에 삼촌과 같이 전라선 기차에 몸을 싣고 남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남원역에서 내리어, 동쪽으로 지외산 가는 걸목을 약 20리쯤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산 골짜기에 수지 지서가 보이었습니다. 지서는 작으나, 금새 부른 순경과 10여 명의 순경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 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전에 고향으로 가신 후였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집에 가셨다고 하니 딱 기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불을 선물로 사오셨습니다. 내 마음은 환층 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동생도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 우등 ③ 제 비

충북 청원군 비상 국민 학교 2년

### 변 복 진

동생은 어느날 나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뱀을 봤어요.” 하니까, 어머니는 “느림보 되려고 봤지.”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좋아요?” 하고 묻는다. “제일 악바른 제비를 봐야지.”

동생은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그럼 제비를 보고 올래야.” 하고 바깥으로 나간다. 어디로 가면 제비를 볼까 하고 대문 바깥으로 나가려 할 때, 어너서인지 제비 한마리가 날아와 빨랫줄에 와 앉는다.

“봤네!” 하고 귀여운 동생의 소리가 나자, 동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기쁜 듯이, “어머니! 제비 봤어요. 언제 느림보 안되지요?” 하니까, “응, 언제 안되겠다.” 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동생은 하는 말이

“을 9월에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1등할래야.” 하고 기쁜 듯이 말하였다.

★책으로 되어 나온★

## 피노치오



이십 만 소학생 독자 여러분에게 귀움을 받고, 다달이 조마조마 하도록 재미나던 피노치오는, 이번에 예쁜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림도 더 많이 넣어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지금 파는 중이니 어서 구하십시오.

책값 140원 · 아협 발행

국립과학 박물관장 조복성 선생 지음

## 곤충 이야기

여름 방학 동안에 곤충을 잡으려면 우선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세상 온갖 곤충은 다 나오고, 그 재미있는 생활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의 과학공부를 도와 드립니다. 절판되었다가 이번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책값 150원 · 아협 발행

동요 · 작문 당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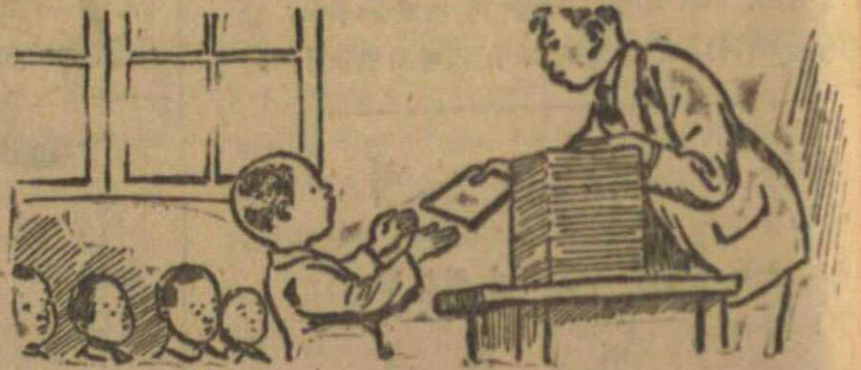
## 입선 ① 새 책

충북 진천군 양승 국민 학교 4년

### 홍 불 석

어떨날 네 시간제 잇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락기 국  
어와 셈본 책을 한아름 안고 들  
어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기  
뻐서 “야아” 손벽을 막 쳤습니  
다. 우리들은 책이 오기를 한 달  
포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  
“책이 언제나 옵니까?” “선생님  
내일은 책이 옵니까요?” 날마다  
이렇게 선생님께 여쭙다가, 오  
늘 책이 와서 우리는 얼마나 기  
쁜지 모릅니다. 나는 자다가도  
잠꼬대로 선생님께 여쭙보고 꿈  
도 꾸었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공  
부도 마음 먹은대로 되지않다가,  
기다리던 새 책이 와서 선생님도  
기쁘신지, 웃는 얼굴로 새 책에 대  
하여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  
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책이 왔으니까 공부를 더 힘써  
해야 하며, 또 깨끗히 책장 한 장이  
라도 찢거나 꾸기지를 말고 잘 배  
웠다가, 너희들 아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려줘야 한다고 말씀하  
시고, 책을 물려주실 때도 큰 목  
소리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서, 나는  
더 뽕뽕이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도 책값을 못낸 동무는 책만 명  
하너 쳐다보고 있었었습니다. 선생  
님이 이르신대로 책을 받아가지  
고, 예쁘고 깨끗한 새 책이 구겨  
질까봐 조심조심 가방에 넣고 집  
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발걸음도 저  
동요 • 작문 당선 작품

절로 빨라졌습니다. 그 책을 아  
버지께 보였더니, 아버지도 기뻐  
하시며 책 겹질을 만지 중이로  
에쁘게 싸주시며, 네가 그렇게  
기다려더니 그어코 왔구나, 인제  
책도 오고 했으니, 선생님 말씀  
을 잘 들어 열심히 공부할 해



## 입선 ② 참 새

충남 청양군 화성 국민 학교 6년

### 박 경 희

자리에 누워서 흔히 참새 소리  
를 듣는다. 오늘 아침도 또 참새  
소리가 들린다.  
나의 처마 밑 참새 한쌍은 언  
제든지 일찍 깨어난다. 포뭇모뭇  
날개 소리가 난 뒤에는 우선 퍽  
퍽 퍽퍽 퍽퍽하는 첫 인사를  
한다.  
나는 모지 않고도 참새가 어디  
앉았는지 짐작한다. 한 마리는  
들 앞에 선 뽕나무 가지에 앉았  
고, 한 마리는 편목으로 만든 울  
타리에 앉았을 것이다. 또 편목

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거니까  
서도 웃으시며 책을 보시며, 자  
다가도 책 책 하고 노래하더니,  
인제 책이 와서 좋겠구나 말씀하  
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들  
고, 책을 이리저리 만져보니까,  
바삭바삭 소리가 귀엽게 들리며,  
공부도 저절로 되는 것 같았습니  
다. 나는 책 열을 떠나기가 싫어  
서 보고 자꾸만 보았습니다.

울타리에 앉은 눈이 부우리개 떨  
을 일세고, 날개를 바로로 펼친  
시 퍽퍽 이런양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가지에 앉은 눈  
이 고개를 가웃가웃 내리다 보  
고, 퍽퍽 달래는 양도 짐작난  
다. 나의 참새는 언제나 이리  
것이 버릇인 까닭이다. 이모모  
아 나의 참새는 어미 새와 새끼  
새가보다.

이 두 마리 새가 내 처마 밑에  
살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도

중간이어서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 참새 소리는 한 날도 그친 때  
가 없다. 요새 와서는 나는 참새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하루 생  
활의 시작이 된다. 이불 속에 누

어서 들은 참새 소리는, 나의 마  
음을 고요하게 한다. 일찍 일어  
나라고 권고하여 준다. 말도 못  
하는 새지마는 나는 여간 깊은  
정미 들었다.

다릴 수 밖에 없었다. 마음을 조  
리며 손뼉아 기다리던 발표날이  
들어왔다. 10시 발표. 누나는 아  
침에 일어나 기운없이 더벅더벅  
비오는 거리를 걸으며 발표를 보  
러가는 광경을 보고, 나는 어쩔  
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누나의 이번 시험은,  
“너의 일생이 잘 되는가 못 되는  
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나는 문득 생각났다.

### 입선③ 누나의 졸업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4년  
백 병 기

우리 누나는 작년 6월 28일  
사범 부속 국민 학교(분교)를 졸  
업하고 제 2고녀에 합격하였다.  
누나는 입학 시험 보는 날 아침  
에 일어나 꼭 걱정스런 낯으로,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나도 은근  
히 걱정되었다.

누나가 시험 보러 학교로 간  
후, 나는 힘없이 학교로 왔다.  
공부는 하기 싫고, 누나가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실수나 하지 않  
았는가? 빨리 잠으로 돌아 갔으  
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겨,  
공부커녕 옆에 동무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유로  
하기 싫은 공부를 끝마치고 잠으  
로 부리나게 달려왔다.

웬일인지 누나는 보아져 않았  
다. 나는 꼭 걱정되었다. 혹시  
실수하여 상하지나 않았나? 아니  
다. 상하기는 왜 상해. 실수는  
무슨 실수야. 누나는 꼭 입학될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는게 누가  
매문을 열기에 뛰어나가 보니, 누  
나는 기운없이 마루에 주저앉았  
다. 나는 꼭 걱정했었다. “누  
가 입학시험 쉬워?” 하고 나는  
누나를 위로하라는 한마디를 누

나에게 던졌다. 누나는 머리만  
끄덕거린다. 나는 어쩔지 마음이  
좋지않았다. “왜 누나 실수했우  
?”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응답  
뿐이었다. “아이 누나두 너무 걱  
정마슈. 거기 떨어지면 풍문고녀  
들어 가지.” 나는 한마디 누나에  
게 던졌지만, 누나는 들은 척도  
아니한다.

나는 누나의 시험 발표날을 기

이 때 누나가 뛰어 들어오며,  
“합격이야!” 하는 말에 나는 짱  
짱짱 뛰었다. 그제야 누나는  
안심한 듯이 한숨을 쉬며, “병기  
야. 너도 이 다음에 입학 시험에  
실수했다고 걱정말아.” 하고 나  
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  
는 세상에 날아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었다.



### 입선④ 우리 동생 봄시내

전북 전주 중앙 국민 학교 5년  
윤 석 철

우리 동생 이들은 봄시내라 합  
니다. 그러니까 성까지 합하면  
윤 봄시내 녀자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재미 없다고 선형이  
라고 짓자고 하시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믿었습니  
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왜  
한자뜨만 이름을 지려고 하는가  
? 우리 말로 지어야 할 것이 아  
닌가?” 하시었습니다. 나는 아버

동요·작문 당선 작품

저께 그 이유를 여쭙어 보았습  
 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봄시내란 이름은, 조선어 학  
회에 계시는 최 철배 선생님과,  
 장 지영 선생님 두분 님에게 내  
 가 문의해서 지은 것이다. 봄은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고, 따  
 스한 바람이 불어 오며, 모오른  
 움이 트고 싹을 의미하는 것이  
 며, 시내는 여성다운게 잔잔히  
 흐르며, 그것이 나중에는 큰 내  
 가 되고 다음에는 강이 되고 다  
 음에는 바다에 이르는 것이니,  
 자손 탄태의 모오른 복이 강과  
 같이 영원 무궁하라는 뜻이다.”  
 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동생 봄시내는 봄에 제작  
 이 나뭇 예쁜 이가 났습니다. 아  
 버지 외출하실 때는 문까지 나와  
 고개를 끄덕거리며 “안녕, 안녕”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는 웃으시며 한번 봄시내를 읽어  
 주시고 가십니다. 우리 봄시내  
 발표를 하며 갔더니 동회 사무원  
 들이 웃었고, 감기 들어 병원에  
 가면 약제사가 그 이름이 우습다  
 고 웃고, 어머니 손님들이 오시  
 면 모두 다 깔깔대고 웃으시지  
 만, 우리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  
 시고는 모두 다 감탄하시고 칭찬  
 하시며, 말 붙으려는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도 와서, “오빠,  
 오빠.” 부르며 아양을 부립니다.

참 어여쁜 우리 봄시내,  
 이름과 같이 아리따운 우리 봄  
시내.

동요·작문 당선 작품

## 입선 ⑥ 통 신 부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6년

### 이 응 속

강당에서 일하기 방학식을 마  
 치고 교실에 돌아온 동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퍼 근심스  
 러운 듯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  
 도 웬일인지 이번 성적이 근심이  
 되어, 통신부 가지고 들어오실  
 선생님이 퍼 알미운 듯 자꾸만  
 가슴이 울렁거렸다.



“스적, 스적”하는 선생님의 멧  
 신 소리, 교실안 공기는 더 환중  
 긴장해 지고 가슴은 더 환중 울  
 렁거린다. “드르둑” 문이 열리더  
 니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우리들  
 의 시선은 일제히 선생님이 손에  
 드신 통신부도 쫓겼다. 선생님은  
 통신부를 나누어 주시기 전, 이  
 번 학급 성적에 대하여 멧 말씀  
 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나는 도  
 무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성적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였  
 다는 한 말씀만이 귀에 남아서,

환중 더 근심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한사람 한사람  
 씩 부르셔서 통신부를 주시기 시  
 작했다.

“너는 평균 70점도 못 채.”  
 “너는 산수가 나직 점수야.”  
 “이런 성적으로 중학교에 어떻  
 게 가니?”

이렇게 선생님은 북북 성적에  
 대한 주의를 하시곤 통신부를 수  
 신다. 한사람 한사람 앞으로 나  
 가면, 우리들은 모두 선생님의  
 입만 쳐다본다. 통신부를 받고는  
 모두 가슴에 꼭 안고 들어온다.  
 그러고 가만의 책상 밑에 손을 넣  
 이 퍼 본다. 그러나 한 사람도 기  
 른 표정은 보이지 않고, 울고 있  
 는 동무도 있다. 내 차례가 가까  
 워 울쭈뚱 마음은 자꾸만 조어들  
 어,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다.  
 차례는 왔다.

“이 응속.” “네.”  
 열떨결에 대답을 하고, 떨리는  
 다리를 저우 옮기어 정신없이 선  
 생님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성적표와 통신부를 대어 보시고  
 빙그메 웃으신다. 낮은 목소리  
 로,

“너도 아직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더 노력해.”  
 하시며 통신부를 주신다. 손이  
 좀 떨렸으나 일흔 받아들고 내  
 자리에 돌아왔다. 동무들은 모두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어기  
 서 볼까. 집에 가져 볼까.” 하며



침침 망서티다가, 책상 밑에 널  
고 가만히 열어 보았다. “앗 생  
각지도 않았던 점수.” 성적은 5  
학년 때 보다는 훨씬 좋았다. 나  
는 나모 모르게 기뻐서 빙그레  
웃었다.

동무들은 모두 수군수군 한다.

그 순간 나는 다른 동무들에게  
꽤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일본  
통신부를 책상 속에 넣었다. 동  
무들은 함사람 함사람 앞으로 나  
간다. 난보모 꺼진 싸늘한 고실  
안이었으나, 기쁨에 넘친 내 얼  
굴은 화끈화끈 말아올랐다. 어서  
어서 집으로 가고만 싶었다.

금도 부끄러울 췌이 없다.”는 것  
을 더 한층 느낍니다.

한편은 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있는 곳에서, “남순네는 어려운  
때도 학교에 가져올 책값 같은  
것을 언제나 선뜻 먼저 갖다 바  
치니 참 기뻐하다.”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  
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는 기뻐하시면서, “그저 공부 잘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납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  
라의 살림살이를 치척 해 나가려  
면, 모오든 국민이 세금 바치는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등,  
“나라의 살림살이가 잘 돼야 우  
리를 국민의 살림살이도 흔들리  
지 않는다.”는 등……, 나는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미더를  
고덕 고덕 하시면서, “그래 어서  
어서 그렇게들 나라 일을 잘들 치  
려서,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네  
도 하루바삐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 입선 ① 세금과 어머니

경기 연백군 흥원 국민 학교 4년

채 남 순

우리집은 여짜만 세 식구가 삼  
니다. 어머니는 떡장수를 판니  
다. 두부도 파다가 판니다. 언니  
는 나무를 해 내고, 밥도 짓고  
집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와 언니는 나를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것도  
필써 세 학교씩 전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힘들어 이사  
를 이따저리 다닌 때문입니다.

우리집은 이처럼 이사를 다니  
고 함시조차 살림살이에 너넨해  
본적이 없었지만, 아무데서 살  
때에도, 나라에나 사회에 드려야  
할 돈을 치르는데, 우리집 보다  
잘 사는 이웃집을 보다 늦게 번 일  
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반장님, 구장님, 혹은 편  
사부소 어른들께서, 동네에 돈을  
독촉하러 몇번씩 나오셨을 때에  
도, 우리집은 환결 같이 때 놓고  
잡니다. “두빅 두빅” 구둑소리가  
우리집 마당을 지나가면서도,  
“주인 계십니까?” 하고 죽 멈추  
는 소리가 안들릴 때에, 나는 언  
제나 마음이 시원합니다. 어머니  
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이 몇푼이나 된다구를 전작을 내  
지, 받으며 다니는 사람은 좋은  
가?” “그것이 몇푼이나 된다구  
……”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  
지마는, 어머니로 남들 보다 먼저  
그것을 낼 때, 돈머리를 채우시기  
에 얼마나 남들때 애쓰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 그만 내 마음이  
탁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세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  
나가는데, 자식을 데리고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  
십니다. 나도 이런 때엔, 또 “내가  
이 세상 여러 아이들 중에서 스



동요·작문 당선 작품

# 반성할 중대한 재료

—특히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 지 용

아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이 해마다 현상으로, 어린이들의 작문과 동요와 동시를 모집하는 것이다. 나도 첫째부터 여러 선생들과 함께 선자 죽에 끼워 온 것을 명에 틈게 생각한다. 해마다 죽순이 돌아 오르 듯하는 어린 소년 소녀들의 씩이 좋고 기상이 놀라운 정신과 재주를 볼 때, 당선된 어린이를 보다, 이러한 어린이들과 그들의 글을 발견한 우리가 도리어 더 기쁘기가 첫아들을 낳은 아버지와도 같고, 또는 기쁘로 사오십이 되어도 소학교 때 반장 노릇 하듯이 신이 나기도 한다.

8·15 이후에 기억 너운을 세로 배워, 이만한 성적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대체 무슨 좋은 꼴을 볼 수 있느냐 말이다.

국민 교육에 과학적 교육(科學的教育)이 토대가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다. 과학적 교육의 토대에 다시 더 기초적 교육(基礎的教育)이 우리의 말갈이 되는 것이니, 말갈의 교육 그 자체가 과학교육(科學教育) 이상의 과학적 교육이 아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과학교육과 과학적 교육을 달리 생각하여 볼 때, 소학교 교육에 있어서 말갈의 표

육은 과학적 교육이 되어야하고, 또 모오든 과학적 교육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말갈의 과학적 교육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말갈의 과학적 방법적 교육에 신념을 갖고, 열의와 부지런을 계속할 때, 우리는 그 효과의 일



(정 지용 선생님)

부 중에도 꽃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린이들의 예술적 표현인 작문과 동요와 동시에서 얻어서, 이것을 과학교육의 승리로 돌리고 안심할만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대한 어른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소질과 천재에 방임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교육의 방법으로써, 어린이의 소질과 천재를 남김 없이 발양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소학생의 작

문과 더우기 동요와 동시를, 신문 잡지 단행본의 사회적 영향에서 다분히 얻어 온 것이었다. 바로 말하면 어린이들의 조속한 자의서적 남쪽벽에서, 문학소년이 되고 문학정년으로 자라서 동요 시인이 되고, 기껏 소년소녀 문학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아 왔다. 이러한 길을 밟아 온 어른들의 영향을 다시 받는 어린이들이 대체 어떠한 어른 문학자가 될 것인가를 항상 교육적 위치에서 반성해야만 한다.

이번 제 사회 현상작품을 모르고 모르고 한 나머지, 우리는 이러한 공통한 결론을 얻은 것이었다.

“동요의 수준은 낮아갈수록, 작문의 성적은 해마다 내려간다.”

선자 선생들의 제점이 거건 열치하였고, 선후 감상(選後感想)이 일치하였다.

동요만 성적이 좋다고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요, 동요가 성적이 좋다고 당선된 어린이들이 자라서 모두 시인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니, 작문 성적이 해마다 내려가는 것이 큰 걱정거리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現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동요의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때 어린이의 자연발생적 중동적 표현에서 우연한 성적이었고, 작문 성적이 내려가는 것은 국민학교의 말갈 교육과 표현 훈련과 기타 종합적 교육 일반의 반성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불과

몇몇 어린이의 작품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수천 어린이들의 작품에서 엄선한 것이 이러한 것이니, 이것을 일개 아형에서 발결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동 교육의 사회적 위치에서 논란할 반성의 중대한 재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일회 때 독등 당선인 이문용군의 "그리웠던 모국"과, 제 작년 모독등 당선인 김종길군의 "나위 발전정"과 같은 것이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을 천재라고 추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이들은 모두 머리가 과연 나뉘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원인을 철저히 밝히 수사야 하겠다.

그러고 이번 작품들에는 진애 볼 수 없었던, 어린이들에게서 보아서는 아니될 입담하고 슬픈 기록을 많이 보았다.

"추월 회비" "아버지를 찾아서" "새책" "새금과 어머니"등을 거쳐 잘 된 작품이니 점수를 많이 수여야 한다는 것은, 그저 사우적 태도밖에 아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이러한 부자연하고 음울한 환경의 기록을 제공하게 된 사정을, 민족과 사회적 위치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항간에 또는 동요와 민요로 민심과 세태를 살피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하고 진급

한 아동들의 현실과 사대의 호소를, 그저 제점으로 통과시키기에 너무도 비뚤한 사정이다.

당선 동요 동시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現狀)을 작품에서 보았다.

국민 학교 선생님들의 작품 과정 지므로서, 이러한 기현상의 생활기록을 보게 된 것이 아니다. 맞춤법과 말을 헛기가 잘못 되었다면, 가장 초보적 책임을 선생님들께 물릴 수는 없지도 않겠으나, 작문에 나타난 어린이들의 겪어야 하는 생활기록 그 자체는, 결

로 선생님들이 저조하신 것이 아닐 것이고 보면, 작문 교육 그 자체로 선생님들이 책임지실 것이 아닌 한 개의 자연발생적 현상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동요 동시뿐만이 아니라, 작문 교육도 학교에서 아동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권력을 다 하여 명년모에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한 성적을, 현상 아동 작품 성적에서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록, 위원자와 교육가와 사회인과 민족으로서 초인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 어린이는 모두가 시인

### 이 병 기



(이 병기 선생님)

수십 여년 전 동아일보 현상모집에 당선된 동요의 특등은, "봄"이라는 제목으로서 이따하였다.

꽃은꽃은 일파달라  
방긋웃는 그얼굴은,  
나비나비 언제보고

춤수머 찾아왔다.]

파란머리 표족표족  
있어들은 숲속에서,]

이름모를 일탄새가  
알수없게 지저귄다.]

들하늘에 아지랑이  
소리없이 아물아물,]

그밀에서 누렁소는  
엄장매고 숨차한다.]

맑은불의 시냇가에  
피리부는 어린이들,]

묵은몸에 새웃입고  
걸계꿍계 봄눈노래,

또 수십 여년 전 우리 국어교본으로 쓰던 "신문독본"의 "화계에서 해 머오름을 봄"이란 제목으로 지은 글 한 대문을 들면,

동요 · 작문을 뽑고 나서

의정부 불과 금곡 벌순 두 옆에 차고, 홍문연봉 김주론 봉치가 치맛자락을 벌터, 무슨 끔찍한 것을 가련 듯하게 들렀는 때, 메뚜기의 거죽대는 날카로운 칼로 짝 뻘뻘, 구름이라도 지나면 베어질 듯도 하고, 가는 붓으로 살짝 그은 화미인의 눈섭으로 견줄만도 하다”

는, 그 때 유명한 동요며 작문이라 일컫던 것이겠지만 “봄”이란 동요는 한갓 사사(四四)조로서 봄광경을 즉 눈이 놓았을 뿐이고, 이렇다 할만한 새로운 생각은 보이지 않으며, 화계의 글 가운데는 유분산 봉우리에 구름이 둘러 있는 모양을 그리는데,

메뚜기의 거죽대는 날카로운 칼로 짝 뻘뻘 구름이라도 지나면 베어질 듯도 하고, 가는 붓으로 살짝 그은 화미인의 눈섭으로 견줄만도 하다.

같은, 위 아래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적었다. 날카로운 칼로 짝 뻘뻘 구름이라도 지나면 베어질 듯도 하다면, 가는 붓으로 살짝 그은 화미인의 눈섭으로 견줄 수가 있을까? 그 실상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말을 늘어놓았다 하더라도 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X X

요즘 동요와 작문은 실정과 실감을 실감케 적은 것이 많은바, 이런 아침에 당선된 것은, 위에 말한 수십여년 전 그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것이다.

동요로 말하면 사사(四四)조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복바쳐 나오는 생각을 사사조든 삼삼(三三)조든, 되는대로 쓴 것이고, 작문도 큰소리 굵소리 따위를 하여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고, 술술 나오는 말로서 자기의 바라고 하고싶고 하여 본 일을 적고 싶은대로 적었다.

글은 거짓말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이의 말을 적으면 훌륭한 글이다. 어린이는 모두 훌륭한 시인이다.

눈이 왔다 눈이 왔다  
마당에도 눈이 왔다  
지붕에도 눈이 왔다  
눈이 왔다 눈이 왔다

이건 나의 친구의 아들 여섯 살 된 어린이가 밤에 눈이 온 줄을 모르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밀거뭇은 몸뚱이로 오줌을 누며 마루 끝에 나와서, 눈 온 광경을 보고 이러한 노래를 부른 것이다. 눈을 보고 기뻐하는 말이 바루 훌륭한 동요다.

그러나 어린이 어머니가 종이 를 펴놓고 붓을 들고 글을 지라

하면, 이런 훌륭한 노래를 적지 못하는 이가 많다. 그건 이런 저 내본 일을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저 남의 글을 흉내 내거나, 따라 쓰거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글을 지을 때 남의 글을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 쓰지도 말고, 그 즉시 감동되는 것이 없으면, 자기가 지내본 일을 글로 생각하여 보라. 그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리라.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나거든 붓을 움직여 적어라. 하는 말을 글 쓰는 어리 분께 주고 싶다.

당선된 어머니의 글이 그 중에는 나은 글이겠지만, 아직도 나아갈 앞길이 멀다. 이번 당선만으로도 그만하지 말고, 당선되지 못한 어머니들도 낙심하지 말고, 모두 더 힘을 쓰고 꾸준히 하여, 그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어 일기를 바란다. 천재는 노력이다. 저금 당선된 어머니만으로는 양양한 앞길을 둔 어머니로서, 그다지 큰 문제를 삼을 것이 없다. 나는 펴 기다리고 있다. 이다음 현상 모집에는 누가 당선될까를.

## 느낀 바를 그대로

### 이 회 승

특등 땅속에 누가 있나봐

이 노래를 지은 차 중경군은 이 우주(宇宙)의 새로운 신비(神祕)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곧 시적(詩的) 충동이 되어서, 가슴 속에서 뚝뚝져 나온 것

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엮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노래가 아름답다는 것은 대적무엇 때문일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힘이 우리(심사 위원들)

모 리어금 기 노리를 특등으로 수월하게 하거나, 물론 이것이 때때로는, 심사 위원들의 생각이 다 똑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만은 모두 일치된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 개인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였다.

(1) 첫째 동요는 시적(詩的)

이어야 한다. 시적이란 것은 좀 어떠한 말이다. 때때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무던 눈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귀송송스러운 생각을 피다 험어버리고, 작 가타안은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꼭바로 뜨고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무엇을 걸으므로만 지나쳐 보지 말고, 속속들이 풀고 들어가 볼 수 있는 무철한 밝은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그 본 바 아름다움을 깨끗한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다듬고 말로 다듬어서, 또 그 느긋한 바를 모스란히 담아서, 알토란 같이 짜낸 노래라야 시적이다 할 것이다. 차 중경군은 능히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노래를 엮어놓았다 하겠다.

(2) 둘째로, 이 노래는 동심(童心)이 넘쳐 흐르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동요라는 것은, 시(詩)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든지 어린이 세계를 떠나서는

안될 것이다. 세 쪽이 돌아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땅 속에 사 올린다는 것,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누가 땅 속에서 물을 끓인다는 것, 이것이 모두 어린이 생각의 세계다. 소꿉질 같은 생각이다. 어른이 볼 때에 유치하기가 짝이 없다. 그러나, 아직 아티오. 어린이 눈에 비친 어떠한



(이 최송 선생)

세계가, 소꿉질 그대로가 아니요, 유치한 어둠땅 그대로가 아닌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세계는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까지도 어떠한 신비(神祕)스러운 세계, 성(聖)스러운 세계와 같이 놓고서 생각할 수 없는 느낌인 것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땅 속엔 누가 있느냐” 신비의 세계를 찾아 보려고 얼마나 애쓰 나머지 나오는 말인가. 애만 썼을 뿐 아니라, 신비의 세계를 발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부르짖음도 되는 것이다. “누가 있느냐”는 형식상으로 묻는 말이 아니라, 아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긍정

(肯定)하는 물음이다. 모리어 “이렇지 않느냐” 하는 딴딴하게 긍정하는 말이면서도, 말뜻의 여유(餘裕)를 남겨 두어서, 입은 이모 하여금 스스로 상상(想像)하는 지경에 들어갈터모록 매력(魅力)을 붙여서, 말 끝을 맺는 솜씨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것은 이 노래는 동심이 가장 솔직히 세련(洗鍊)되어서 흘러 나온 좋은 노래 중의 하나인 것을 말하여 두고자 한다.

(3) 다음으로, 이 노래는 시적이요, 동심이 잘 나타나 있지 마는, 여기에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이 노래는 또한 지은이의 실감(實感)에서 울어 나왔다는 점이다. 마음에 없는 글소리가 아니요, 입에 붙은 밥풀이 아니다. 즉 마음 속에 느낀 바, 생각 작작 말 작작이 아니다. 만일 그 생각한 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말로만 꾸며서 요리 조리 발라 놓는다면, 그야말로 물 위에 기름 들듯이, 이 노래는 비성기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군의 노래는 그러한 빈 구석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4) 비로소, 이 노래는 남이 부른 것을 되풀이 한 것 같은 것이 아니다. 차군의 독특한 창견(創見)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봄별이 점점 드래와 울적, 너무나 끝없는 세 악들이 물어 뽑는 듯이 돌아 나오는 것을 보고, 시적 흥취(興趣)를

동요·작문을 뽑고 나서

꽃이겨서 부른 노래는, 어른이 나 어린이나 그 수요가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땅 속에 누가 숨어 있어서 쓰옥 쓰옥 울터민다는 것은, 나 아는 범위에서 작문 외에 다시 없을 것이다. 동요든지 산문(散文)이든지 남의 입내를 내지 말고, 항상 자기의 독특한 새로운 생각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다섯째로 말의 아름다운 것이다.

손가락으로 쓰옥 울터미나봐하는 말의 “쓰옥”이라든지, 쓰옥 모란꽃 재색이 나온다. | 쓰옥 할미꽃 재색이 나온다. 의 “쓰옥”은, 이 노래에 짜여진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된다. 돌아 나는 재색과 같은 예쁜 말이다. “쓰옥”이란 말의 뜻도 예쁘지마는, 그 소리(發音)도 뛰어나 예쁘다. 아마 이 노래의 뜻이나 가치(價値)의 중심(中心)이 이 말에 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6) 여섯째. 이 노래는 어린이다운 점이 좋다. 여기서 어린이답다는 것은 동심이란 뜻과는 다르다. 노래의 짜임짜임이 너무 딱딱이 아슬리고, 너무 빈틈 없이 짜이고, 너무 탕개가 세계 사개가 맞추어진 노래는, 그것이 어린이의 작품(作品)으로는 속성에 지나쳐서, 어른다운 점이 능후하면, 그런 것은 어린이의 노래라는 알미를 만큼 노성하여(점잖아)서, 동요로 그리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우등 제1식 되는 “아기의 잠”이 월등 나올 것이다. 그 노래는 너무도 빈 구적이 없이 짜여서, 어린이의 작품으로는 지나치게 아름답다. 어른의 작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차라리 어린이의 작품으로는 어느 모자라는 귀퉁이가 좀 남아 있는 듯한 점이 오히려 아이답고 옛되어서, 함흥 더 읽는이

의 마음을 매력있게 끌 것이라 생각된다. 이 노래의 둘째 절은 즉 그러한 점이 나타난다. 첫 절에 비해서 숨길 수 없는 손색(遜色—모자라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이 노래의 애교(愛嬌)를 더욱 발휘(發揮)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아마 나의 독단만이 아닐 것이다.

## 너른 세계를 가지자

### 박 영 중



(박 영중 선생님)

만편에 가까운 동요를 한꺼번에 읽어 보기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작품을 한곳에 모아놓고 보니, 모두 비슷비슷 많은 점이 많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그 동요의 잘 잘못은 그만 두고, 생각들이 응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풍부한 꿈의 나라, 또는 동무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에서 느끼는 자자한 느낌을, 그런 것은 자취를 감추고, 겨우 문관에 피었을 꽃송이나, 나비 한마리의 휘란 따르거나, 혹은 기껏 어린 동생의 자장가를 불러주는 정도입니다. 동요라면 으레이 그런 처량에 노래 못하는 듯이.

말하자면 동요라는 조그마한 틀 속에 여러분이 빠져버린 셈입니다. 그것을 무너버리세요. 동요 짓는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떠담스름게 노래하면 됩니다.

특선된 작품은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작품입니다. “꿈이 비행기”도 좋은 예가 되지요.



말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 좋은 동요나 동시가 아닙니다. | 이치면 그 많은 여러분의 작품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부러 말을 꾸미려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봄바람은 오래히  
살랑살랑

불어야 하는 것이며, 꽃은 오래히

방긋방긋

꽃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참 느끼서 (眞實感 感動) 지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지없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말을 더수히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선된 동요에,

“소유”

이란 말이 없었으면 특선의 뜻다른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작가가 느낀 것에 가장 참된 것을 나타내는데 적당한 말만 쓰자는 것입니다.



“당 속에 누가 있나봐”는 첫째 그 생각이 새로운 것, 둘째 지은 습체가 이른바 동요에 적당히 있지 않고 자유스러웠는 것, 셋째 “소유” 이란 말이 예쁜 것으로 특선에 추천되었습니다.

“생물”은 생각이 뛰어났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라서 좋고, “증이비행기”는 동요를 대하는 그 너그러운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을 한 해 더욱 노력하여서, 내년에는 더 좋은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 제 소리와 남의 소리

## 윤 석 중

여러분은 미술 전람회 가 보신 일이 제실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의 그림이 벽에 가르런히 달려 있고, 그 옆에는 누구거라고 쓴 종이쪽만이 붙어 있을 따름입니다. 만일 그 그림을 그런 이틀이 그 옆에 서서 제자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수다스럽게 떠들고 싶다면, 그 얼마나 우수한 노릇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일일이 해야 그 그림 맛을 알 수가 있다면, 벌써 그 작품은 썩었습니다.

이러 그림 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요나 작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불친 작품들을 가며고, 보쳐 고쳐 써거나 설명을

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보더러 작품이 상해서 맛이 가시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지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는, “제 소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느낀바, 본바 생각난바를 꾸밈 없이 솔직하게 적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발견자 훌륭한 발명가는, 과학계에만 있는 것이아니니, 여러분 어떤 예술가께서는, 좋은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발견자, 훌륭한 발명가 소리를 들으십시오. 색동옷 입힌 어린 시나 수험난 동요로, 남의 흉내 어린 시함을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애함이비밀 것이니 큰 일이 아닙니다.

# 어떤 작문이 떨어졌나

## 조 풍 연

이번이 네 번째, 해마다 모집하는 작품 중에 작문의 초선은 내가 맡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온 작문 전부를 내가 한 번 읽고 나서, 그중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몇 십 편 골라서 심사원에게도 물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내가 읽은 작문은 참으로 수만 편이나 되는 셈이다.

그 감상을 적자면, 한 말로 말한다면, 네 해 동안에 그다지

뛰어나게 나아갔다고 할 수 없다. 내 욕심이 과하다면 과한지 모르나, 읽어 가는 동안에 가슴을 찢으거나, 과연 그렇고나 하고 감동할만한 작문이 드물었다.

어느 작문이 심사하는 사람을 감격시키는가를 말하기보다, 나는 어떤 작문이 조선에서 떨어졌나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다음에 낙선한 작문의 경우를 적기로 한다.

동요·작문을 뽑고 나서

(1) 어른 흉내를 낸 것=신문이나 라디오 혹은 장연회에서 어른들이 연설하는 것을 본떠서 글이라고 지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소학생 어른 흉내 아니라도 어른들이 더 잘 지을 수 있는 것이다.

(2) 봄에 대한 글=봄은 해마다 오는 좋은 시절이다. 봄을 가지고 글을 짓자면는 특별히 그 봄에만 있는 일, 혹은 자기만이 발견하고 관찰할 봄이야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봄”이란 제목으로 써 보낸 수많은 작문은, 모조리 “ 즐겁고 추운 겨울은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하고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하는 무로 시작하여, 봄에 대한 설명을 꽤히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만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소풍” 혹은 “원숙” 같은 제목으로 쓴 것이 있다. 이것들도, 그날 소풍가서 보고 느낀 것에서 깊이 인상 받은 것을 적지 않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좋았다. 어디로 모여서 어디로 가서 점심을 먹고 잘 놀다가 돌아왔다”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

다면, 이것은 특별히 글로 지어 남에게 보일 것은 못 된다. 만일 소풍갔을 때에 보고 느낀 것을 조금도 빈틈 없이 잘 그려내면, 그것은 글을 잘 짓는 데도 가장 도움이 될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해 나아가는데 무엇을 특별히 보고 깊게 생각하는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것이 된다. 유감이나마 그런 글이 별로 없었다.

(3) 나는 연필이요=연필 문이 아니라 “나는 기차요.” “나는 돼지요” “나는 책상이요” 하는 따위의 제목이 뜻밖에 많았다. 짓는 사람이 어느 물건이 될양으로 그 물건의 내력을 적는 것은 재미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어른 소설가가 할 일이지, 순결한 소학생이 글 짓는데 할 수만이 아니다.

(4) 내 동생·우리집 강아지=이것은 매우 좋은 제목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참 예쁩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나를 잘 따릅니다”라는 무로 고만인 것이 많다. 자기가 예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이 예쁘다고 할만한 것을 고집

여 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제 동생이나 집에서 지르는 강아지가 귀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5) 거짓말이 쉬운 것=갈색 나아가다가 중간에 거짓말이 섞이면 달이다. 일 번 정말을 썼어도 한 번 거짓말이 섞이면 그는 곧 거짓말쟁이가 된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때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위에 적들은 것과 같은 것은 낙선되기 쉬운 것이었는데, 글을 짓는 것은 입선이고 낙선이 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인지를 높이고 지식을 높이는 큰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차근차근 글 짓는 실험을 길러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주위에도 참으로 풍부한 글 재료가 많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은 말한 것도 없지마는, 언제나 항상 유심히 관찰하고 느끼는 사람이면,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남을 감동시키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첫째 보기부터 잘 보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영철 선생 지음

## 학생 조선어 사전

해방후 나온 사전중에 가장 많이 퍼진 사전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입니다. 아직 갖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 팔리기 전에 속히 구하십시오.

책값 250원 ☆ 아홉 발행

이영철 선생 지음

## 틀러기 쉬운 말

한글 맞춤법을 알기 쉽게 배우려면 우선 까다롭고 틀러기 쉬운 말부터 잡아내서, 이것들이 왜 틀러기 쉬운가 외어 낸시다.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

책값 80원 ☆ 아홉 발행



# “소학생”은 다달이 자라간다!

## 8월에는 임시증간 소년소설특집

소설을 쓰신 분들

이원수 선생  
김영수 선생  
김동리 선생  
정인택 선생  
최병화 선생  
박인해 선생  
채규철 선생  
심은정 선생  
조풍연 선생

삽화를 그린 분들

김현웅 선생·김용환 선생  
김의환 선생·임동은 선생  
김규택 선생·김기창 선생  
조병덕 선생·한홍래 선생

방학 동안에 나올 것이니 잊지 말고 사십시오.

“소학생”은 과연 여러분의 “소학생”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잡지도 많이 나왔으나, “소학생”은 “소학생”대로 목자가 부쩍부쩍 늘어서, 마침내 이달부터는 모든 비용이 울랐음에도 불구하고 4페이지씩을 늘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목자 여러분이 “소학생”을 애독하고, 또 선생님과 부형님이 모두 “소학생”을 애껴주시는 덕택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8월 방학동안에 버위를 모르고 지내시도록, 우리는 남이 흉내 못내는 소년소설 특집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쪽에는 소년 소설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총동원 되어, 기운차고 눈물겨운, 혹은 우스운 소설을 써 주시었으니, 애독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8월치를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대개 7월 15일께 발매 예정

※나을 무렵에 여러 신문에 광고를 내겠으니 눈여겨 보십시오

## 9월치부터 실리는 새 연재 소설

“소학생”이 십만 독자를 울리고 웃기고 애태우던 두 연재 소설, 정인택 선생의 “하얀 쪽패”와 작은울 선생의 “피노치오”는 이달치로 끝을 막았습니다. 두 소설이 너무나 인기가 높아서 독자로부터 감사하는 편지가 연달아 들어오던 터인데, 우리 편집부에서는 두 분 선생의 다음 작품을 놓치지 않겠다고 간청하였더니, 께히 승락하시어 이번에는 더 굉장한 소설을 9월치부터 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학생”을 애끼면 애끼수록 “소학생”은 더욱 훌륭한 잡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소설	이름 없는 별들	정현웅	지음
모험소설	모오구리	기작김	지음
		프링클	번안
		은기창	그림

(정글의 소년왕)

정인택 선생의 소설은 “봄의 노래” “하얀 쪽패”를 외판지는 감지 소설이며, 작은울 선생 빈안의 “모오구리”는, 늑대 굴에서 자라난 소년이 벌과 현승이를 상대로 모험하는 이야기입니다.



# 아름다운 새벽

엄 흥 섭 (그림·김 의한)

만식이네 소학교 6년 동안을 우등생으로써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재물이었지만, 금년 중학교 시험에 웬일인지 낙제를 하고 말았다. 우등생이라고 반드시 입학 시험에 합격되리라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만식이보다 훨씬 성적이 뛰떨어지는 동무 아이들이, 보기 좋게 이기 지기 척척 합격이 되었다고 콧대고 다니는걸 볼 때, 만식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기가 꺾이기도 했다. 만식이네가 시험에 낙제를 한 뒤로 제일 심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만식이 부모보다도 만식을 1학년 때부터 맡아 가르쳐 온 담임 선생 박 선생이었다. 박 선생은 자기 자신이 입학 시험에 낙제를 당한거나 다름없이 분노해서 운했다. 입학 시험기를 앞두고 졸업반 학부형들이, 퇴출받지 보충이에 무슨 물건을 싸가지고 박 선생을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이 꼭 입학 되드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들을 대마다, 박 선생은 물머리가 아팠고 괴로웠다.

그러나 6년 동안 자기네 지식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입학 시험 때가 되어 특별 지도를 할 때가 되어도, 담임선생 한 번 찾아와서 수고한다는 말 한 마디 없는 학부형들 보다는, 비록 귀찮긴 하나 자주 찾아와서, 애원하는 학부형들의 성의에는 온근히 기쁘기도 했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만식이 부모는 6년 동안을 두고, 담임선생이라고는 한번도 찾아본 일이 없다. 박 선생은

만식이네 가정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으러 선생인 자기가 틈만 있으면 만식이네 가정을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늘 생각히 내려오면서도, 졸업반을 맡은 뒤부터는 늘 해가 저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한번도 만식이네 집을 방문하지 못하고 말았다.



만식이네 집은 만식이 어머니가 만식이 동생들을 거느리고, 콩나물 장사를 해가며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다. 만식이 아버지는 해방 전부터 조선 독립을 위하여 일본 관헌의 눈을 피하다가, 해내 해외(海內海外) 동지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다가, 아깝게도 일제의 폭악한 앞제비 경찰서 고등지 형사에게 붙들려, 징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다가, 해방직전 감옥 안에서 원통하게도 병들어 죽고 말았다. 해방이 되자 감옥 문이 열리어, 남편의 동지들은 모두 나오게 되었으나, 자기 남편만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을 때, 만식 어머니



는 띠가 아플만큼 서럽고 이가 갈리었다. 만식이도 아버지가 왜 감옥에서 죽었는지를 차차 알게 되면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를 잡아간 놈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 누구냐! 반드시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만식이는 틈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너부 이제는 몇해 안돼서 청년이 된다. 너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뜻을 너는 꼭 이루어야 한다.”

만식이 어머니가 이렇게 만식이를 타이울 때면, 만식이는 용기있게 주먹을 쥐고 나서며,

“걱정마세요. 날 어떻게든지 중학교만 졸업하게 해 주세요!”

하고 재편에는 큰 포부나 있는 듯 굳센 결심을 보이곤 했다.

“설마 이 애미가 동냥을 해서라도 너하나 중학 공부를 못시키겠나.”

이렇게 큰 소리를 하기는 했으나, 중학에 들어가자면 대번에 입학 수수께이 몇 천원, 책 값이 얼마, 양복 구두 값이 얼마해서, 만원이 넘는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형편이질만, 실상 준비된 돈은 불과 그 반절도 못되었다. 그것도 만식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문문이 조금씩 조금씩 따로 떼어 모은 돈이다. 만식이는 입학 원서를 낼 무렵에 자기 집안 사정을 생각하고, 어

동요



# 꿈

## 한인현

밤이 되면 모두 모두 꿈을 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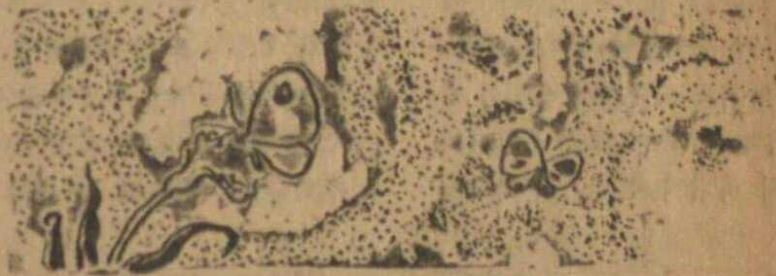
파랑새는 파아란 꿈을 꿉니다.

빨강새는 빨알간 꿈을 꿉니다.

낮에도 잠만 들면 꿈을 꿉니다.

흰 나비는 하이얀 꿈을 꿉니다.

노랑나빈 노오란 꿈을 꿉니다.



머니에게 야학이나 다니겠다고 간청한 일이 있었다.

“내 말이 기특하다. 그러나 어떻게 낮에 회사나 공장에 가서 일하구 나면 고단할텐데, 밤에 야학 공부가 되겠나. 내가 차라리 밤잠을 들자고서 바느질꿈이라든 더 나은지 낫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여 만식언의 거를 돌아 주었다.

“아이구 만식이는 뭐 공부를 잘하니깐, 어디든지 걱정 없이 들어 갈걸 뭐!”

이웃집 학부형들이 놀러와서는 어떻게 만식이를 칭찬할 때면, 만식 어머니는,

“시험이란 그런게 아니라우.

공부 잘한 아이두 그날 기분이 나쁘면 시험을 잘 못치는 거라우.”

하고 설명해 주곤 했다.

“그날 일수가 나쁘기로 공부 잘한 아이가 온 떨어지겠우. 소학교서 6년 동안을 내리 우등만 한 아이는, 시험을 좀 잘 못치려두 봐준다는데 뭘 그러슈.”

“그렇지만 실상 입학이 꽤두 학비가 걱정이라우. 즈 아버지 지나 살았어두 좀 낫지 않겠우.”

“그렇구 말구요. 백지장우 맞 들면... 낫다구... 그러나 저러나 우리집 녀석은 학교 성적이 저 모양이니 낭패로구려.

이밖에 두 겨우 낙제를 면하고 졸업이 될 모양인데, 담임 선생 두 오죽이나 귀찮겠우. 우리집 녀석 같은 멧덩구리들을 다 어떻게 처치를 해! 일일히 점수를 늘여서 소견표를 만들 수두 없을 겨우, 그렇다구 나쁜 성적을 그대로 지원 학교에 보냈다간 보기 좋게 비역국일테니, 정말 소학교 선생 노릇 허기두 어려운겁니다...”

이웃집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은근히 자기 아들의 입학에 걱정하였으나, 합격자 발표가 되던 날, 보기 좋게 합격이 되어 이웃집마다 자랑삼아 돌아다니며, “그러기에 소학교서 성적이 좋다구말 중학교에 잘 들어가 는게 아니지 뭐야. 중학교에

선 입학생을 뽑을 때, 보는 눈이 따루 있다나봐.”

이렇게 수고를 떨곤했다. 이럴 때마다 만식이 어머니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만식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둘째 부형이라고는 흉미인 자기밖에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식으로 하여금 낙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만식이 말마따나 시험을 치지 말고, 낮으로 어느 회사 급사 노릇이라도 시키고, 밤으로 야학이나 보내기로 작정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이나 편할뻔 하였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 공연히 걱정마세요. 꼭 중학교 입학이 돼야만 공부하나요. 학교에 안 들구두

너너히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만식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의 표정이 우울할 때면 이렇게 말하여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했다.

“말이야 좋은 말이다. 그러나 어간 결심해 가지고 그제 되겠다. 옛날 미국의 링컨이라는 사람은, 고학을 해가거나중에 대통령까지 됐고, 쓰면의 풀키이라는 소설가는, 소학교를 못다녔어도 세계에 유명한 문호가 되기는 했더라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도리어 만식을 위로하려고 했다.

“아아니 어머니, 인제 보니깐 어머니두 링컨을 다 알구, 풀키이를 다 알구, 아주 윤택하



선데……”

만식이 싱글벙글 웃으며 어머니를 놀린다.

“이 녀석아, 가난해서 콩나물 장사는 한다만, 아무리 그만한 것쯤 몰라가지고 너희들의 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찬탄말이나!”

만식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며, 어느덧 감옥에서 죽은 남편의 일이 뼈에 사무쳐 올라왔다.

“그 전에 아버지한테 배우셨우?”

만식은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나의 아버지는 아시는 것두 많으셨단다. 내가 좀 더 커서 청년이 되면, 너의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것을 다 주마.”

“정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어디다 두셨우?”

만식은 중급할 듯이 박박 대어든다.

“어서 커라. 커야 준다. 그동안 우리 살림이 이렇게 가난해두, 너의 아버지가 남기고 가실 귀중한 물건이라, 하나도 팔아서 쓰지 않았다. 모두 고이 너희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두었으니, 내가 부지런히 자라서 아버지 뜻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에 만식어는 눈물이 뱅그르르 들었다.

“염려마세요. 내 정말 고학이라두 할테어요.”

만식은 용기를 재어 어머니를 위로했다.



만식은 며칠 동안 어머니에

게도 별 말 없이,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 돌아왔다.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어머니, 나 새알 초하룻날부터 회사에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하고 보고를 한다.

“회사라니? 어느 회사 말이나?”

“남대문동에 있는 약품 회사예요. 그리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기로 입학 수속까지 해 왔어요.”

“그래, 기어이 회사 급사가 됐단 말이나.”

어머니는 서글르게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두, 이 세상에서 어디나 혼자만 급사 노릇해요. 가난해서 학교 못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급사 노릇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 일해 가면서 밤으로 야학 다니는 거예요.”

만식어의 이 말에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월급은 얼마나 준다며나?”

“설마 야학 다닐 학비야 살라 올라가요!”

“그렇지만 소학교 6년 동안을 내며 우등으로만 졸업한 내가 급사 노릇을 하다니, 세상두 너무 야속하구나!”

어머니는 또다시 얼굴에 슬픈 빛을 내었다. 만식어가 회사 급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문이 이웃에 퍼지자, 이웃 사람들은 웬일인지 만식어네 집에 갈 오지도 않았다. 급사 노릇을 하러 다니면 착하달 아이두 못된 버

릇만 배운다는둥, 실농거리구 전방져진다는둥, 야학에도 고단해서 못다닌다는둥, 만식어를 둘러 짜고 이웃사람들은 이렇듯 저렇듯 이야기들이 벌어져곤 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는 입학할 하는데, 담임선생을 얼마를 먹였다는둥, 누구는 새로 들어가는데 몇 단원을 거꾸하고 겨우 들어갔다는둥, 뽕뽕 이야기 가 다 벌어져곤 했다. 이웃집 만식이 동무 아이는, 아직 입학식도 하기 전부터 입학된 거뽕에 못이겨, 뽕뽕 새 모자에 새 모포를 사서 달고, 새 양복에 새 구두를 신고서는, 만식이 보라는 듯이 자만삼아 관목 산을 올라가려곤 했다. 때로는 “만식아!” 하고 만식어 곁으로 불쑥 들어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웬일인지 만식어도 뽕뽕 반가이 대하는 기색이 없었고, 만식어 어머니도 속이 상하곤 했다. 그러저럭 만식어가 회사에 급사로 나가기 시작할 날이 이를 남았다. 새 학기 입학식이 시작되는 날도 마관겨지로, 여를 밖에 남겨 놓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만식아! 만식아!”

하고 문 밖에서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어를 6년 동안 가르치던 담임선생 박 선생이 왔다.

“아이유, 선생님 어서 좀 물어오세요!”

만식 어머니는 박 선생을 맞아드려었다.

“아주머니! 만식어 입학은 제가 해결했으니 염려마십시오.”

“네? 입학 문제가 해결되다  
니요?”

“만식이를 보결생으로 입학시  
키도록 저의 학교서 그 동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결  
생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이  
번 입학식 날 꼭 만식이를 데  
리고 나가십시오.”

박 선생은 급하게 말을 하고  
잠깐 쉬더니, 이번에는 천천히  
입을 연다.

“이번 만식이가 나제를 한 것  
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적  
어도 6년 동안 내리 우등한  
아이가 입학 시험에 나제 결  
수를 했겠음니까? 그래서 사  
실은 저의 학교서도 학교 명  
예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그  
학교의 감정을 사지 않을 정  
도의 항의를 하고, 교섭을 한  
결과 보결생으로 입학시키도  
록 해결이 된 것이예요. 그리  
고 학교에 벌 수속금도, 우리  
학교 직원들이 의논한 결과,  
직원들이 추념을 해서 내게 되  
었으니 그저 안심하십시오.”

박 선생의 이 말에 만식이 어  
머니는 너무도 지나칠 기쁨을  
뜻이겨, 고개를 숙으리며 눈을  
가리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이렇  
게 선생님들 한테까지 지나칠  
괴를 끼치게 하여 죄송합니  
다. 비록 힘은 없지만 보결생  
리두 들어가게 됐더니, 내가  
밤잠을 덜 자구라도 학비만큼  
벌어 대겠습니다.”

만식 어머니는 굳센 결심을  
보였다. (36페이지에 계속)



★ 수동이의 친절

저쪽에서 편지 배달부가 편  
지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수동이...어디를 가십니까?  
배달부...저 집에 편지 전하러  
간다.

수동이...저런, 아저씨 바본가  
봐. 우체통에 넣으면 저절로  
갈텐데 그래요?  
배달부...뭐??  
? (서울 영희  
교 5의3 이은찬)



★ 100점

복동이...어머니! 나 오늘 시  
험에 100점 받았어요.  
어머니...머?! 100점? 아이  
참 잘했구나.  
복동이...이것 보세요. 국어가  
50점, 도 셈본이 30점, 잇과  
가 20점, 그래서 모두 합해  
100점! 잘했지 어머니?  
어머니...??? (서울 동대문  
교 2년 정인순)

★ 이리석은 도둑놈

순경...너 이놈 도둑질 했지?  
도둑놈...아닙니다. 아베요.  
순경...이놈 거짓말 말어. 댁님  
이 내려다 보셨다.  
도둑놈...아닙니다. 제가 도둑  
질 한 때는 밤이였어요.  
순경...알았다. 알았어. (서울  
집광교 6의 1  
오석옥)

★ 만원 전차

차장...만원입니  
다. 그만 타



세요!  
시골영감...어보 차장! 다른 사  
람은 5원내고 타는데, 어찌  
나는 만원을 내라는거요?  
차장...사람이 많아서 못타니까  
만원이지요.  
시골영감...??? (서울 창경  
교 3의3 이영식)

★ 복남이의 피

복남이...어머니, 나 10원만.  
어머니...돈 없다.  
복남이는 무엇  
을 생각하다가  
복남이...어머니,  
두부장수가 왔  
어요.  
어머니...두부를 사오너라. 옛  
나 20원 여기 있다.  
복남이...어머니, 30원 있으면  
서 10원이 없어요?  
어머니...??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교 2의 1 이상구)



★ 이것도 실험인가?

동생...형님, 뱀이 죽어 있구 없  
는 것을 어떻게 알우?  
형님...그까짓 것을 몰라?  
동생...모르니까 물어보지, 알  
면 누가 물어본담.  
형님...그진말야, 뱀한테 물어  
보면 알지  
뉘냐.  
동생...??  
(서울 하  
왕집터 818 서대석)



★ 누가 바보?

복동이가 세계 지도를 펴고  
이탈리아를 가리키며 하는 말  
이,  
복동이...아버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광화 감이 생겼어요?  
아버지...이 바보야, 그때 그것  
도 모른단말어나? 이 나라  
구두는 모두 광화단다. 그러  
서 그렇지.  
복동이...??? (서울 수송교  
5의5 김영희)

서양화(西洋畫)는  
누가 제일 먼저 그렸나?

춘곡 고희동 선생

조용만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유명한 화가가 많았습니다. 솔나무를 그린 명공을 보고, 새가 정말 솔나무로 알고 날아들었다는 신라(新羅)시대의 유명한 화가 솔거(率居)를 아끼는 아십니까?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림이라고 자랑하던 내량(奈良)법흥사(法隆寺) 벽에 그린 그림도, (그것은 얼마 전에 타버렸을 나만) 실상은 우리 나라 백제(百濟)시대의 유명한 중인 달증(曇徵)이가 일본에 초빙되어 가서 그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는 그림 잘 그리는 알바니 많습디마는, 그것은 모두 동양화(東洋畫)라는 그림입니다. 이 동양화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려온 유화(油畫)를, 우리들은 서양화(西洋畫)라고 부릅니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그 쓰는 재질이 다름 뿐더러, 그리는 법도 달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못되고, 우리 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 서양화를 그렸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합시다.

우리 나라에 서양화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광무 2년, 즉 서력 1898년에 서울 종현(鍾峴)에 보죽집(天主教堂)이 서고, 그 교당안 벽



에 그려진 여러 가지 종교화(宗教畫)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러 가지 종교화야말로 우리들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서양화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그 이름다운 광무 3년(1899)에 미국(美國)에서 보스라는 화가가 우리 나라에 와서, 미국 공사관의 소개로 우리 나라 고종(高宗) 황제와, 그 아드님인 순종(純宗) 황제의 초상(肖像)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황제는 기뻐하셔서, 그때 돈으로 2만원



이란 큰 돈을 주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외국사람이 그린 서양화이고, 우리 나라 사람으로 서양화를 제일 먼저 배우고, 또 그런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분은 춘곡 고희동 선생입니다. 그 선생은 우리 나

라에서 미국으로 보낸 친선사절단(親善使節團)원의 한 분으로, 지금 미국에 여행 중이십니다.

선생은 1885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금년 63세가 되시는데, 스물 세살적인 1909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외국 유학생으로 동경 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수도 얼마 안되었었지만, 모두 법률공부를 하느라고 다른 공부는 아무 것도 안들어보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선생은 혼자서 깊이 깨달은바가 있어서, 미술(美術)공부, 더구나 남들이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는 서양화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동경에서 묵실하게 서양화를 공부하고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 우리 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서양화를 그려서 일반에게 보이고, 또 여러 학교의 도와 교원이 되어서, 젊은 학도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누구누구라고 손꼽는 젊은 서양화가치고, 선생의 지도를 받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은 우리 나라 서양화계의 선각자이며 또 원로입니다.

“소학생” 6월지에 있는 우리 나라 공부 가운데, 원자사(圓覺寺)라 쓰인 환문글자는, 圓覺社의 들림으로, 여기 바로 보쳐들입니다.

# 하얀 쪽배 ⑥

정 인 령  
그림·정 현 응

## 자는듯 마는듯

돌아누운 경애의 어깨가 한참 동안이나 들먹들먹 하더니, 이윽고 숨 소리가 잔잔해 지며 울다 지쳐 잠이 든 모양입니다.

수사를 밟고 나서 고통이 좀 덜하니까, 흥분이 차차 가라앉은 모양입니다.

“좀 잠이 들었나 봅니다.”

“네. 한잠 자고 나면 인제 견정되겠지요.”

최의사와 곰보할아버지는 후우 한숨을 내 쉬며, 얼굴을 마주 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울며불며 날뛰는 경애를 달래느라고, 그들은 앓은 경애보다도 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곰보할아버지가 정성껏 끓여 다 준 흰죽을 두어 술갈 뜨는듯 마는듯 하더니, 그에 경애는 꿈나라로 끌려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선생님.”

누어 자는 경애의 얼굴을 한참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던 곰보할아버지는, 한참만에 고개

를 들더니 새삼스럽게 최의사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무슨……에 아버지 소식 들으셨습니까?”

“왜요?”

“그때두…… 어디서 무슨 그런 기백을 물어 봤건데

……선생님을 그렇게 놀라게 하지 않았겠어요?”

“글쎄……”

최의사는 여질리 아까 모양으로 말을 열거드립니다.

“그렇지 않구서야……애가 버란간에 그럴 리가 있네요…… 정말 선생님 아무 말씀두 못 들으셨습니까?”

“……”

최의사는 대답을 안하고 한참 동안 물끄러미 곰보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영감님, 경애가 정말 잠들었나 좀 봐 주십시오.”

섬숙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보할아버지는 그때 하더니



키를 경애 코 밑에다 껴다 대이고 한참 숨소리를 엿듣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최의사는 수건을 해서 곰보할아버지를 가까이 불러 앉힌 후,

“영감님.”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에 아버지 소식을……”

최의사는 그때도 미심쩍은지 또 자는 경애 쪽을 힐끔 걸눈질해 보고 나서,

“……듣기는 들었는데……”

“네 그랬습니까. 그때 잘 있었습니까? 대체 어떻게……”

당황해서 음성을 높이는 곰보할아버지를,



“네이……”

최의사는 짐작 놀라서 말리

“가만 가만히 얘기하십시오. 결  
정자 장을 했던 큰일 납니다.”

“네.”

곰보할아버지는 머리를 득득  
굽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낱만한  
목소리로,

“궁금합니다. 얼른 말씀해 주  
세요.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  
렇지 않으면……”

최의사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눈을 시긋이 감은 후 고개를 절  
절절히 내 흔들더니,

“악한 일입니다.”

내 뺨뚤 이렇게 한따더 툅 잘  
타 말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경찰서에서 통  
지가 왔길래……”

“무슨 통지예요?”

“경애 아버지인듯한 사람의  
시체……”

“시체요…… 그럼, 주 죽었  
단 말씀입니까?”

곰보할아버지는 또 음성을 높  
였다가 얼른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물어막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저런. 따 따할 데가  
……”

“그래서 참아 그것을 입 밖에  
대지 못허구……이리저리 궁  
타고 하고 있는 판인데……어  
떻게 그것을 경애가 눈치 쫓  
는지……후우”

최의사는 또 한숨을 쉬더니,  
이런저런 눈에 눈물이 글썽해 가  
고,

“당장님 물어 보시우.”



주장편 소년 소설부

# 봄의 노래

鄭人澤 著

여러분 읽어 보셨습니까? 경애 선생  
님이 써 내신 “봄의 노래”를. 작년에  
“소학생” 지상에 실리어서, 많은 독자  
들을 울리고 기쁘게 하여. 독자들의 가  
슴을 초라게 하던 소설 “봄의 노래”가  
이번에 한권 짝이 되어 나왔습니다.  
잡지에서 한번 읽으신 분이나, 아직  
안 읽으신 분이나 어서 읽으십시오.

결장 정 철웅·속그림 김 의환

국판 130페이지·값 300원

지금 각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서울市太平路2街73 同志社 兒童園 電話本局02350

“네.”

곰보할아버지도 덩달아 눈물  
을 흘리며 최의사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경애는 숨소리  
하나 없이 벽쪽을 향하여 굳히  
잠든 모양입니다.

(2)

저녁에 수색원을 내인 사람의  
시체 같은 것이 발견되었으니,  
곧 와서 보라는 통지가 경찰에  
서 온 것은 어제 아침나절이었  
습니다.

최의사는 밥을 먹다 말고 허  
둥지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뒷뜰에 놓여 있는 공  
공 얼어죽은 사람의 시체는, 들  
림 없는 경애 아버지의 시체였  
습니다.

떨어 놓은 거직배기를 감간  
들었다 얼른 도로 들고 난 최  
의사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  
다 못래 개령지 변역한 경애 아  
버지의 얼굴을, 최의사는 그 이

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일  
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경애 아  
버지의 시체는 강 가 낭떨어지  
밑, 큰 바위 그늘에 놓여 있었  
더라 합니다.

아마 발을 헛 더더어 굴러 떨  
어진지지요. 얼굴과 손 발에 나  
뭇가지에 걸켜 민뜻한 상처가  
몇 군데 있을 뿐, 다칠 데는 없  
고, 마뭇 날이 몹시 추운 “이  
라, 그런데 떨어져서, 인사불성

이 된 채 얼어죽고 단 모양이  
라 합니다.

시체 옆에는 한약 세 첩과 진  
문지에 쓴 빈대떡 몇 점이 떨  
어져 있을 뿐, 오랜 세월이 경  
과된 후이라, 다른 아무 흔적  
도 남아 있지않았다 합니다.  
경찰에서 안 것은 이것 뿐이었  
습니다.

이미 본인이 살아 있지 않은  
으로, 어쩌서, 언제 어떻게 그  
렇게 되었는지, 상상 외에는 자



러니 눈에 띄어 더 찾  
지를 못했지요……”

“그저 술이 몸을 망친  
다드니……”

“술두 술이지만……경  
애 주터구 빈대떡까지  
짜들구 나오셨으니까,  
아주 취하지두 않았는  
지 모르지요.\* 마 운이  
지, 다르게 생각할 도  
리가 있습니까. 아마 바  
나님 돌아가시는거 보  
기가 싫어서 짜기가…  
…편지……세상을 떠난  
게지요.”

말을 마치고 췌의사는  
가만히 주먹을 눈에다 갖  
다 대었습니다.

곰보할아버지도 언젠가  
를 훌쩍어리며,

“원 이 노릇을 어찌나,  
참 야단 놔군.이 애가

알았던 큰일인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딱하다는거예요. 그  
렇다고 애기 안할 수두 없구  
……”

“어떻게……무슨 수두 그 애  
길 틀려 주어요. 저는 못하겠  
어요.”

“그래두 영감님이 잘 타일터  
가면서 말씀 하시는게 좋을텐  
데요.”

“저는……못하겠읍니다. 그래  
……이 앓고 있는 어린것한테  
……가득이나 예미를 잃구 정  
경 울구 있는 판인데, 끝까지  
어떻게 너의 아버지 말어 죽  
었던 소리를 합니까?”

“그래두 안할 수두 없지 않아

책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색중에 있던 사람의 시체임  
은 틀림없으나, 죽은 사람의 딸  
이 있으니 그 아이에게 한번 더  
보인 후, 시체를 찾아가겠다고 그  
렇게 말한 후, 췌의사는 경찰서  
출 나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췌의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  
고나서, 또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목메인 소리로,

“내 생각엔……결애 아버지가  
……그 날 밤에 술은 좀 취했  
었어두; 결애 어머니 약을 저  
스려구 고개너머 환악국까지  
가셨던 것 같애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곰보  
할아버지는 코만 훌쩍어리며 아  
무 뭐구도 안하고 듣고만 있을

니다.

“……그러다가, 오는 길에 아  
다 술이 좀 파해서 빙판에 미  
끌어졌거나, 길이 어두니까  
발을 헛터덕었거나 해서, 그  
냥떠러지로 굴러 떨어지신 것  
같애요. 거기서 떨어져셨으니  
인사불성이 안될 수 있애요.  
그래서 코만……”

말어 죽었을 것이라는 그 말  
은, 참아 입밖에서 못내고 췌의사  
는 또 잠깐 말을 끊었다가,

“……기기가 워낙 외톨메라  
사람의 눈에 잘 안떠구, 또  
다침 타워 그늘이라서 여태  
아무두 몰랐던 것이드군요.  
더구나 그 다음다음 날인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애요. 그

요. 하여간 오늘 안에 경찰서  
에 가서 시체를 찾아와야 함  
인데.....참 큰일 났군.”

이렇게 최의사와 곰보할아버지  
가 서로 다루고 있을 때, 벼란  
간 누워 있던 경애의 어깨가 들  
떡하더니, 와락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형언할 수  
없이 비통한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보가 터져 강물이 썩  
하고 밀려들어 오듯, 참고 참  
았다가 그에 북바쳐 올라온 울  
음이었습니다.

경애는 잠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곰보할아버지와 최의사  
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만 것입  
니다.

## 아름다운 잔치

### (1)

나이 어린 경애로서는 감당  
못할만큼 커다란 타격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곰바자 앓아 누웠으니 무슨 기  
력으로 경애는 이 놀라운 소식  
을 태연히 들을 수 있었겠습니  
까.

울 줄도 몰랐고, 슬피할 줄도  
몰랐습니다. 과도히 슬프거나  
놀랐거나 할 적엔, 사람은 이렇  
게 천지 같이 멍하니 얼이 따  
져버리는가 봅니다.

사람 대하기도 싫었습니다.  
가만히 혼자 누워만 있고 싶었  
습니다. 뺨한 눈으로 물끄러미  
실경을 쳐다보고 누워 있는 경  
애의 모양은, 한없이 애처로워  
보는 사람마다의 눈물을 자아냈  
습니다.

그런지도 벌써 일주일.....

최의사와 곰보할아버지가 한  
사코 말리는 바람에, 그러지 않  
아도 일어날 기운이 없었지만,  
경애는 아버지 장사에조차 참례  
하지 못하고, 꼭 일주일 동안을  
자리에 누운 채였습니다.

최의사가 정성껏 간호하고 치  
료한 덕으로, 경애의 몸에선 차  
차 신열이 가시기 시작했고, 그  
리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  
게 되었습니다.

경애 병이 낫기 시작한 것을,  
누구 보다는 반가워한 이는 곰

보할아버지였습니다.

“인젠 됐다.....밤을 다 먹겠  
다니 기운좀 채면제로구나.  
뭘 먹구 싶은거 있으면 말해  
라. 그리구, 하루바디 훌훌  
털구 일어나거마.”

“먹구 싶은거 없어요.”

경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  
답하고 나서, 가만히 머리맡 책  
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소북히 고여  
있는 과일들.

봉지에 들은 채 그대로 정반  
위에 담아 놓은 과자와 설탕.

## 등요 한밤 자곤 권태응

박덩굴이 오늘도 길었습니다.

한밤자곤 조금씩 자라납니다.

조각달이 오늘도 커졌습니다.

한밤자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귀염동이 아가야 우리아가야.

한밤자곤 조금씩 너도자라라.



그림·임 동 은

모두 등무들이 정성껏 갖다  
줄 사랑스러운 선물들입니다.

그것들을 한 입, 두 입, 세 입  
물들여 먹었다,

.....어서 빨리 일어나야 이  
온해를 갓지.

늘 그것을 생각하고 눈물지  
며,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기더  
에게 온 경애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고맙  
습니다. 애들아, 참 고맙다.....

경애의 처지도 처지였지만,  
희의사를 위시한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애정은, 얼마나 외로운  
경애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잠간 눈물이  
등방하려는 것을 경애는 꼭 참  
으며, 다시 얼굴을 곰보할아버지  
쪽으로 돌리고,

“할아버지.....저 때문에 요새  
일부 못나가셨지요?”

오래간만에 입가에 가냘픈  
웃음을 띄웠습니다.

“별.....쓸데 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하루 이틀 놀았다구  
설마 굶어야 속겠니. 이런 핑  
계나 있어야 집에서 다리 팔  
털구 좀 돌아보지.”

(30페이지에서)

“만식아, 이제는 너무 훌륭한  
중학생이다. 소학교서 6년 등  
안 내리 우등하듯이, 중학에  
들어가지도 내리 우등을 해야  
한다. 응? 자신 있니?”

박 선생은 만식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네, 자신있어요. 선생님 정  
말 감사합니다. 학교의 명예

곰보할아버지는 걸걸 웃으시  
입니다.

“노지거나 허렸어요, 뭐. 애  
애니 제 시중드시느라구.....”

“그것두 어디 내가 했니. 내  
등무들이 다 와서 해준걸...”

잠간 말이 끊어졌습니다. 경  
애는 이곳이 눈을 감고 한참 무  
엇을 생각하는듯 하더니, 가만  
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  
다.

곰보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자  
당황해서 말리며,

“왜 이러느냐. 아직 억지루  
기동하지 말구.....좀 더 누  
워 있거라.”

그러나 경애는 자리 위에 단  
정히 일어나 앉아, 이불로 무릎  
을 덮은 후,

“괜찮어요.....”

그리고는 엄숙한 얼굴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마차허구..... 말허구... 팔어  
주세요.”

즉 잘라 말렸습니다. 7

“마찰.....팔어달라구?”

“네.”

“전 왜, 또 벼랑간에.....”

를 위해서라도 우등을 하고야  
말겠습니다.”

“오냐, 그 생각만 잊지 말아  
라. 우리 선생들은 이번 내  
일을 교훈삼아 이런 생각들을  
했다. 너처럼 성적이 좋은 아  
이가 학비가 없어 중학을 못  
가게 될 때는, 학비를 모조하  
자는 희를 만들기로 했어. 이  
희는 우리 교원들과 일반 유

“왜 든지요, 네? 그러구 이  
집두요.....”

곰보할아버지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팔장을 쥔 채, 묵묵히 앉  
아 지실 뿐입니다.

(2)

경애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  
나 보았습니다. 좀 다리가 휘청  
거렸지만, 한 걸음 걸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최선생님은 아직 며칠 더  
누워 있으라시지만.....빨리 쉼  
두 내줘야겠구.....이만하면 다  
났는데 뭘.

경애는 혼자 마음 속에서 이  
렇게 중얼거리고, 조심조심 들  
로 내려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쁜하게 세수를  
하고 나니까 서 정신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하  
늘. 봄이 가까웠는지 바람도그  
리 차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돌  
어가 내총 머리를 가리고 나서,  
세 웃으르 갈아 입으려는데, 소  
문도 없이 누가 불쑥 물어왔습  
니. .

“그에 일이났구나. 며칠만 더

지와 학부형들이 한데 모여  
의논하기로 되었어. 넌 학비  
걱정은 말고 이제부터는 부지  
런히 공부해야만 한다.”

박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  
고 양복 주머니에서 목재한 봉  
투를 꺼내 만식이 어머니에게  
주었다. 봉투 속에는 만식이 일  
학 수속금으로 쓰라고 5천 원이  
들어 있었다. —(끝)—



참지 못하구……”

최의사였읍니다.

“아이구 선생님 오시네……젠  
참어요. 아무렇지부 않은걸요  
필.”

“알던 애가 비탄간에 모양내  
구 데제 어디를 가는거냐?”  
왕진 갔다 오는 걸인지 최의  
사는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앞  
치도 않고 이렇지 물읍니다.

“선생님천래 가려든 참어요.”

“나천래?……”

“네. 저어……”

경애는 잠간 망서리더니,

“오늘 아침에……집두 팔렸에  
요.”

“그랬어?”

“네. 그래서 집두 팔 내 뒤  
야겠구……또……저번에 선생  
님 말씀대루……”

“음지, 우리 집에 와 있어 주  
셨단말이냐?”

최의사는 얼음 같이 퐁퐁 얼

어 붙었던 경애의 마음이 풀리  
기 시작한 줄을 알자, 귀어워서  
못견디겠다는 뜻이 가방을 내  
던지고 경애의 어깨를 껴안았읍  
니다.

“경애야……”

“선생님……”

“네 딸이 되겠다말이지?”

“……그민전…… 못돼두……”

간호부 노릇이나 배우겠어요.  
학교에 보내 주세요. 야학에  
요, 네 선생님……”

“아무렴. 학교 뿐이겠니……  
자아, 그럼 어서 이사할 준비  
히자.”

“아네요. 오늘 하룻지녁은 더  
여기서 자야겠어요. 그래야  
……”

경애는 최의사의 품에서 사르  
르 몸을 빼고 생긋 웃으며,

“이따가 저녁 때 선생님 모시  
러 가게요……그 때 되면 아  
세요.”

그러면서 장난군 전머슴 모양  
으로 후닥닥 밖으로 뛰어 나갔  
읍니다.

### (3)

그 날 해질 무렵.

경애 네 집 올라가는 언덕 위  
에서 최의사는 품보할아버지와  
머주쳤읍니다.

“할아버지부 경애천래 가십니  
까?”

“선생님두……허허허.”

품보할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웃고 나서,

“조금 전에 그 애가 뛰어내려  
오더니, 곧 오라구 성화 같이  
재촉이프군요. 그래 무슨 영문  
인지부 모르구 집을 나왔답  
니다. 선생님두 뭘지 모르십  
니까?”

정말 알 수 없다는 뜻이 고개  
를 가우똥거립니다.

“나두……그래서 끌려 나왔는

결요. 하여간 가 보면 알겠  
죠.”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주  
고 받고 하면서, 나란히 경애네  
집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셨다……”

“어쩌면……같이 오시네.”

그런 제집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부엌에서 후닥닥 경  
애가 뛰쳐 나왔습니다.

“선생님……할아버지, 어서 오  
십시오.”

그러고는 앞서 마루로 올라가  
며,

“추우실 텐데……들어 오세요.

빨리……”

이제까지의 경애와는 딴사람  
같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태  
도였습니다.

최의사와 곰보할아버지는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얼빠진 사  
람 모양으로 경애 뒤를 따라 방  
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최의사와 곰보할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  
이 동그래서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꼼짝도 못합니다.

아직 바깥은 채 어둡지도 않

았는데, 방 안에는 남포가 두  
개씩이나 화안하게 켜 있었습  
니다.

깨끗히 치운 방 한 가운데에  
는, 교자상이 놓여 있고, 그 위  
에는 흰 형질까지 덮여 있었습  
니다.

“어서 이리루 앉으세요. 인제  
곰 들여올테예요.”

경애는 아랫목 쪽 방석을 가  
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아니, 대체 어떻게 된 셈  
이냐?”

먼저 곰보할아버지가 입을 열  
었습니다.

“아무 것두 아네요. 앉아 계  
시면 인제 아세요.”

경애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나  
서, 또 한 번 생긋 웃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상이 들어오기 시작했  
습니다. 기영이, 금란이, 상숙  
이, 그리고 경애 ……이렇게 네  
소녀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  
니다.

솜씨는 보잘 것 없으리 몰라  
도, 그릇마다 담겨있는 그 지극  
한 정성 때문에, 어떤 대갓집

음식보다도 맛있을상 싶었습니  
다.

솜씨도 결코 알볼 수는 없었  
습니다. 부치개머 나풀이며 쪼  
개머가 다 격에 맞인 솜이, 참  
말이지 놀랄만 했습니다.

경애가 마지막으로 고깃집시  
와 주전자를 들고 물어오더니,  
“너희들은 왜 앉지 앉구서 있  
니?”

등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서,

“선생님……할아버지……”

변갈아 한 번씩 부르고는 상  
옆애가 꿇어앉아,

“저 때문에……너무두 애틀  
찌 주셔서……어떻게 이 은혜  
를 갚아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오늘 저녁엔……등  
무들러구 같이 모시구……약  
주나 한잔 대접허려구……”

말하는 사이에 제 말에 스스  
로 감동했음인지, 경애의 목소  
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참새대 같이  
지켜려 대일 기영이들도, 상 앞  
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잠  
잠합니다.



크의사와 곰보할아버지도 가  
 호한 경애의 말을 듣고 있는 사  
 리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슬픔을 터뜨리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자리는 금  
 방 눈물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  
 다.

크의사는 빈적 고개를 쳐들  
 고,  
 "내가 주는 술을 어떻게 안먹

겠니. 하하하, 할아버지, 자,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는 방 안을 한 번 휘이  
 둘러 본 후,

"어더, 얼마나 음식 솜씨들이  
 있나 먹어 봐야지. 잘못만 했  
 어 봐라.....이 찌개는 누가  
 끓였지? 금란이냐?"

그렇게 놀려대었습니다. ]

× ×

집 판 돈, 마차 판 돈, 모두  
 합쳐서 경애는 크의사에게 말기  
 리라 결심했습니다. 좀더 자라

서, 그 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와, 그리고 오빠의 산소를 만들  
 어 드릴 작정입니다.

아름다운 잔치는 그날 밤 늦  
 도록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끝)

## 여 러 가 지 열 매

### = 뒷 걸 장 설 명 =

들이 되어 파이란 짝이 나고 일어  
 들고 꽃이 피어, 그리고 이 꽃이 떨어지  
 면 열매가 맺어진다. 것은, "소학생" 4  
 말지 뒷걸장 설명을 읽어서 아실줄 압  
 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 즉 사과나,  
 열무, 배 같은 실과는 맛으로 우리의 구  
 미를 돌아주지만, 다른 열매, 원두, 콩,  
 콩, 쌀, 김자, 오이 등 수 많은 열매  
 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  
 생양(養生品)에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식물의 열  
 매는, 또한 그 지방에 따라 생산(生産)  
 되고 안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야  
 지열매, 바나나, 망고스킨, 핵화야 등은 열  
 대지방에만 나는 것입니다. 야지열매는 크  
 기가 사람의 머리만하고 딱딱한데, 이것을  
 열매의 속에 든 물을 마시는 파실입니다.  
 야지 식물(植物)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가  
 지 유명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무  
 들! 식물은 살구나. 가시없는 장미나무를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러한 이야  
 기는 듣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계의 "요정왕이 식물왕(植物王)"이라고 일  
 본을 맡던 루우시아·바이빙크란 사람은,  
 "이런 이상한 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 세  
 상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그는 지금으로부터

더 98년 전, 아메리카 마사추세츠주 말  
 카스카아라느 곳에서 낳은 사람으로, 여러  
 서부터 흉장난과 식물 가꾸는 것을 유감리  
 즐겼자 합니다. 커감에 따라 여러 가지 식  
 물과 열매를 더 맛있게 크게 개발할 것을  
 결심하고,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10세  
 때부터 다니던 아저씨 공장을 하직하고, 2  
 0세 되던 해 시골로 가서 밭을 갈고 파  
 수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16세 때 공  
 장에서 유익한 기계를 발명하여, 그 값으  
 로 아저씨가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밭을 밟으로 하고 열심으로 연구한 결과, 감  
 자든 포두든, 배, 밤, 살구, 이밖에 많은  
 종류의 이상한 열매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예  
 들 들면, 좋은 딸기를 만들기 위하여, 8  
 1만 종류의 딸기나무를 연구시험하여, 안  
 메리칸 딸기나무와, 쓰비엘 딸기나무를 집  
 중시킨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계에서 제일 크고 맛있는 딸기를 얻었  
 습니다. 또 그는 가시돋힌 선인장을 보고,  
 이 선인장은 가시만 빼면 좋은 식물이 열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대담하게도 이것을  
 연구하여, 수년후 이것 역시 성공한 것입니  
 다. 이 선인장을 먹어본 여러 사람들은,  
 "참 맛있다. 마치 봉숭아나 메론이나 파  
 이를 맛과 같군!" 말하며 감탄하였자 하  
 니, 이 얼마나 이상하고도 신기로운 연구  
 인가. 동무들! 흠을 뵈었다 이러한 연구  
 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 ◎바람의 종류

①무풍(無風)...바람이 조금  
 도 없는 것으로, 1초 동안의  
 바람의 속도(速度)가 0으로부  
 더 1미터 반까지.

②연풍(軟風)...갈수록 연기  
 가 똑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  
 람이 부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  
 의 바람으로, 1초 동안의 속  
 도가 1미터 반부터 3미터 반  
 까지.

③화풍(和風)...나뭇잎이 흔들  
 들릴 정도로, 3미터 반부터  
 6미터까지.

④질풍(疾風)...나뭇가지가  
 움직이며, 1초 동안의 속도가  
 6미터부터 10미터까지.

⑤강풍(強風)...나무의 큰 가  
 지가 움직일 정도로, 속도는 1  
 0미터부터 16미터까지.

⑥열풍(烈風)...나무 줄기가  
 움직이고, 속도는 25미터부터  
 29미터까지.

⑦구풍(颶風)...이것은 바다  
 에서 일어나는 1초 동안의 바  
 람의 속도가 29미터 이상인 큰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집  
 이 무너진다.

물을 튼튼히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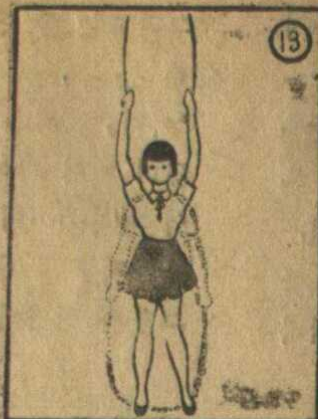
누구나 할 수 있는

# 줄넘기 ②

박 은 설



이 “줄넘기” 이야기를  
써 주신 박 은 설 선생님은, 대한줄넘기연구  
소 소장이며, 또 대  
한권투총련맹 이사이십  
니다. (사진은 박 은 설)



⑬ 발을 번갈아 옆으로  
내어 놓으면서 뛰는  
법.



⑭ 발을 앞으로 들고 다  
리를 펴서 뛰는 법.  
앞으로 든 발을 발끝  
까지 죽 펴가지고, 왼  
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뛰는 것.

⑮ 발을 앞으로 들고 안  
으로 두르면서 뛰는  
법.

두 발을 맞추어 뛰고,  
왼쪽 발끝을 다른 한  
쪽 발 앞으로 돌리어  
서 땅에 대는 것.



⑯ 발을 번갈아 앞과 옆  
으로 내어 들고 뛰는  
법.



⑰ 몸을 앞과 뒤로 기울  
이고 다리를 펴서 뛰  
는 법.

다리를 편 채로 번갈  
아 앞과 뒤로 내어 든  
다.



⑱ 팔을 서로 어긋나게  
진짜로, 발을 앞과 옆  
으로 내어 들면서 뛰  
는 법.

발은 ⑮번과 같이 하  
고, 다만 팔만 서로 어  
긋나게 뛰고 뛰는 것.







①⑨ 두 팔을 옆으로 두르면서 빈갈아 한쪽 발로서 뛰는 법.

2, 3, 2, 1, 2, 3.....의 순서로 함.



①⑩ 한 사람이 줄을 두르고, 셋이 함께 뛰는 법.



①⑪ 둘이서 짜고 함께 뛰는 법.



①⑫ 셋이 짜고 함께 뛰는 법.

①⑬ 셋이 짜고 함께 뛰는 법.



①⑭ 아홉 사람 뛰기.

한 사람이 뛰는 줄도 세 사람이 뛰는 것이니, 많은 연습이 필요함.

1. 그림과 같이 줄을 치서.

2. 그림과 같이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것.



☆ 장편 소년 소녀 소설 ☆

# 꽃 피는 고향

최 병화 지음  
김 복원 그림



불행한 중에서도 새 희망을 가지고 끝끝내 싸워 나가는 세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고, 깨끗한 우정과,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가지가지 사건이 펼쳐져, 희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을 소설입니다. ☆

(내용의 한정면)

책값 180원 ☆ 번갯 박문출판사

말 아 박문서관 서울종로2가 86번의  
과는비 건재 서울 2023번  
★시골 등무는 송로 20원을 첨부하여 보내십시오



### 7. 귀를 막고 종을 훔치다

별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이웃사람이 그 집에 종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종을 업고 가려고 하였으나,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로 들부수어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갈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두드리니가 소리가 굉장히 났습니다.

“이것 큰일이다! 남이 듣고 쫓아오면 어쩌나!”

하고 그는 곧 두 손으로 제 귀를 막았습니다.

### 8. 추 위

제나라 경공이란 임금 때에 눈이 사흘을 두고

내려서 그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경공은 여우 털로 만든 뜻뜻한 옷을 입고, 눈은에 올라 서서 눈 경치를 바라 보았습니다. 이 때에 안자라는 분이 임금을 피려 와서 그 곁에서 있었습니다. 경공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군. 사흘이나 눈이 퍼부었는데 추위를 모르겠으니.”

“춥지 않으시옵니까?”

하고 안자가 반문한즉, 경공은 잠자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안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옛날 어진 임금은, 내가 배부르면 곧 백성들이 주리지나 않나 하고 걱정하고, 내가 뜻뜻하면 오히려 백성의 추위를 근심하고, 내가 편하면 백성의 괴로움을 걱정하였습니다. 상감께서는 여우 털 옷을 입으셨으니, 백성들도 다 추위를 모르는 줄로 아시옵니까?”

### 9. 작은 사신

안자라는 분은 워낙 키도 작고 몸도 작은 분입니다. 이 분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안자를 좀 놀려 주리라 하고, 커다란 정문 옆에 미리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자가 왔을 때, 그 조그만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마중나온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개 나라에 짐부름을 왔다면 이런 개구멍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초나라에 사신으로 왔으니 이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소.”



에 갈 사람이 따로 정하여 있습니다. 어쩔 임금이 제신 나라에는 어쩔 사람을 보내고, 어리석은 임금이 제신 곳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냅니다. 저는 제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놈이므로, 여기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그림 · 김 기 향

## 애독자 아협 상라기

### ☆ 문 제 ☆

① 땅 속에서 나온 석유는 처음 무엇이냐 부르고 무슨 빛이며, 또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② 코끼리의 초상은 옛날에도 지금모양 더운 열대지방에서 살았는지요?

위에 있는 두 문제는 모두 “소학생” 7월호에 있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대답을 쓰십시오. 바로 맞춰 보내신 분에게는, 다음과 같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1등 · 20명 — 학습품 한벌씩

2등 · 60명 — 좋은책 한권씩

마감 · 9월 20일

발표 · “소학생” 9월호

보내실곳 · 서울 鍾路 2街 永保빌딩 兒協 “소학생” 編輯部

주의할 것 · 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꼭꼭히 쓰고, 봉투 겉에는 “필상” 이라고 쓰십시오.

타국나온 사람은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하는 수 없이 큰 문을 열고 안자를 맞아 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안자가 초나라 임금께 피니,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제나라에는 그대 다른 사람은 없소?”

“그런 퇴가 있겠습니까? 서울 임치에만도 집이 팔천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일제히 옷소매를 펴면 하늘이 어두어질 것이며, 만약에 일제히 땀을 흘리면 비가 쏟아지듯 할 것입니다. 거리를 걸 자면 남의 어깨에 부딪히고, 앞에 가는 사람의 발을 밟을까 염려될 지경입니다. 이리하 운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초나라 임금이,

“그러면 어찌하여 제나라에서는 하구많은 사람 중에 그대를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요?”

하니 안자가 곧 대답하였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어린이 크는 데에 반드시  
한권씩 있어야 할 책★

尹石重의 어린이독본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와 노래에  
그림과 곡조를 붙인 책

新菊版 64面 \* 책값 130원

총판매 文章閣



(문) 과학계 선생님이 하 편집부 여러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석유(石油)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땅에서 뽑어 나온다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나오는지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석유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 배동 국민고 6년 박승렬)

(답)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하루바빠 배워야 할 것은 과학입니다. 의심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석유란 석탄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는 암석(岩石) 가운데 들어있는 것으로, 까쓰의 힘으로 저절로 땅 위로 뽑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기계의 힘으로 퍼올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원유(原油)라고 합니다. 이 원유가 어떻게 해서 땅 속에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진부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어 대중잡기 어려우나, 어느 학자는 땅 속에 있는 철이나 석회(石灰)의 탄화물(炭化物)

에, 물이 작용(作用)을 해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또 어느 학자는 화산(火山) 최후의 발산물(發散物)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모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가장 믿을 만한 학설(學說)은, 바다 밑 흙 속에 과몰린 동물질(動物質)이, 지압(地壓)과 지열(地熱)로 인하여, 변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석유가 된 것이 모관인력(毛管引力) 또는 수압(水壓) 때문에, 지층(地層) 속을 차츰 차츰 이동하여, 일정한 곳에 모이면 그것이 유전(油田)으로 되는 것입니다.

석유는 때때로 천연적(天然的) 까쓰와 같이 땅 위로 뽑어 나오는데, 이것을 분유(噴油)라 합니다. 또 땅 위로 스며 올라 근처 물 위에 뜨기도 하는데, 이것은 삼유(滲油)라 합니다. 만약 석유가 잔존 고인 땅 속을 인공적(人工的)으로 구멍을 판다면, 석유는 힘차게 하늘 높이 뿜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여 관 구멍, 즉 우물을 유정(油井)이라 하는데, 이것

을 파는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있습니다. 즉 손으로 파는 것과 기계로 파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퍼낸 석유, 즉 원유는, 황갈색(黃褐色) 또는 흑갈색(黑褐色)의 걸쭉한 액체로, 비중(比重)은 0.771—1.020, 주로 탄소(炭素)와 수소(水素)의 화합물(化合物)인 탄수화물(炭水化合物)로 이루어졌고, 그밖에 질소(窒素), 유황(硫黃), 산소(酸素) 등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석유는 원유가 아니고, 정제(精製)한 것인데, 이렇게 만들려면, 먼저 퍼올린 원유를 큰 통에다 담고 한참 두어, 흙물과 기름을 분리(分離)한 다음, 이것을 증기관(蒸氣罐)에 보내서 열을 가하면, 점차 가벼운 성분(成分)부터 증발하기 시작하여, 온도가 높아감에 따라 무거운 성분까지도 증발하니깐, 이것을 적당하게 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라 각기 틀리는 그릇 속에 증기를 보내서 시키면, 그때 한 온도로서 증발한 기름만이 서로 모이게 됩

니다. 이렇게 첫번에 증류시킨, 즉 섭씨(攝氏) 150도의 열로 증류시킨 것을 휘발유(揮發油)라 하고, 150도에서 200도 사이 열로 증류한 것을 증용석유(燈用石油=램푸에 키는 석유=중유(中油) 혹은 경유(輕油)라고도 함)고, 300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이 중유(重油)입니다. 중유는 만든 후 일탄 냉각실(冷却室...어떠한 물건을 차게 시키는방)로 보내어, 그 속의 과라진을 결정(結晶)시켜 이것을 빼내고, 다시 증류하면 기계기름이 나오고, 최후에 아스팔트가 되는 것입니다. 경유는 그대로 연료(燃料)로 쓰기도 하나, 다시 증류하여 휘발유를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낸 휘발유는 분해(分解) 휘발유라 말하고, 앞서 말한 중유에서 직접 빼낸 것은 직류(直留) 휘발유라 합니다. 이리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석유는, 또한 많은 불순물(不純物)을 품고 있으니깐, 여기서 유산(鹼酸)을 섞어서 저온 다음, 불순물을 가라앉히기까지 없앤 다음, 다시 산성백토(酸性白土)속을 걸러나와 가지고, 비로소 세제 시정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아메리칸이고, 다음은 노비엔입니다. (편집부 과학계)

# ★ 코끼리 이야기 ★

## 최 명 환

코끼리의 코는 참으로 크고 길  
니다. 정말 그런 코는 세상 천하  
이더를 찾아 보아도 볼 수 없습  
니다. 뽕물 중에 경장히 긴 코를  
가진 것이 많기는 하나, 그것은  
다른 코고만 코에 비해서 말한  
것이지, 코끼리 앞에서는 애초부  
터 비교가 되지요 않습니다. 그  
런데 이 코끼리의 코는 길고 클뿐  
아니라 벌 재주를 다 부리며, 그  
것으로 훔치는 것이 없을만큼 사  
람을 놀라게 합니다. 원래 코  
는 냄새를 맡기 위한 물건이고,  
또 물을 들이 마시고 내 똥은  
통로가 되는 것인데, 코끼리는 코  
를 마치 사람의 손과 손가락 같  
이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동  
무들은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  
겠으나, 먹물 것을 코 끝으  
로 집어서 입에 넣기도 하고, 코  
끝으로 나뭇가지를 꺾기도 하고,  
먹물 것을 주면 껍질도 베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밖중  
모양 물을 빨아 들여가지고 내  
똥기도 하고, 목마당에선 가진 자  
있는 재물을 부려 사람을 웃기  
기도 합니다.

서양 어느 동물원의 코끼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너무 놀림을 받  
아, 그 분주리로 콧구멍에 물을  
들어들어 내뿜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나. 이 코끼리는 모두 열  
대지방(熱帶地方)에서 사는데,  
먹물 것을 찾으러 들로 돌아나닐  
때, 또는 무서운 짐을 만나 쫓겨  
나갈 때라도, 근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 힘차게 뽕어 적을 씻기  
기도 하고, 그것으로 목욕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물이 있으랴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때는 모래라  
도 코로 들여마셨다가 적에게 부  
리기도하고, 또는 제 몸을 뿌려  
서 목욕모양 한답니다.

이와 같이 코끼리에게는 언제



나 물이 많이 필요하여, 평시에는  
오랫동안 물 속에서 목욕하는 것  
을 일삼고 있으며, 해엄도 꼭 잘  
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는 동물이지요.

이 코끼리는 대부분 배를 지어서  
사는 동물도, 어디를 가든지 동  
무나 가족이 열을 지어 다닙니다.  
새끼코끼리가 있으면 엄마코끼리  
는 뒤에서 잘 살피주며, 코를 새  
끼코끼리의 등에 대고 "오른편으  
로 돌아라, 왼편으로는 가지 말  
아"하는 식으로 길을 가르쳐 주  
고, 장 같은 것을 건너 갈 때에

는, 코로 새끼 코끼리를 휩싸서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등에 업  
고 건너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코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임으로, 코끼리에게서 코를 베  
어 버린다면, 우리 사람의 손과  
발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요,  
그야말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코끼리가 처음부터 무더운 열대  
지방에 살았으며, 또 긴 코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

금이니까 코끼리가 인  
도나 마테에제도, 아프  
리카 중부 지방에서 살  
고 있지만, 결코 먼 옛  
날, 이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고대  
(古代)에는, 아주 수  
운 북쪽, 즉 지구 위  
의 북반구(北半球)  
에서 많이 살고 있었  
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지방에서 학  
술연구(學術研究)로  
파낸 화석(化石)에 의  
해서, 어떠한 먼 옛날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보여지는 것  
을 연구하여 보면, 처음에는 몸키  
로 1미터밖에 못되는 작은 동물  
이었고, 그 때는 그렇게 긴 코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도 지  
금 보통 다른 동물처럼 꼭 작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몸이 커감으로써 위아래 입  
술이 차차 커갔습니다. 더욱 또  
몸이 커가고, 무거운 살너가 달  
린 지어다란 머리를 받들기 위해  
서, 목이 짧고 굵어져 다리가 기  
둥처럼 높아감으로 코도 점점 길  
게 자라, 지어다란 몸을 꾸부러지  
않아도 힘안드러고 먹을 것을 찾  
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나.

# 피노치오

디즈니 \* 그림  
작은들 \* 역음



## 11 고래에서 도망

“가엾은 피노치오야, 우리는 영영 도망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제페토는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떡하든지 달아나야지요.”

피노치오가 말했습니다.

제페토는 슬픈 낯으로 피노치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노치오야, 달아날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니? 저기 내가 만든 때가 있긴 하더마는...”

제페토는 길게 한숨을 쉬고나서 피노치오에게 물었습니다.

“때가 아직 거기 있나 보아라. 있을테지. 우리만 나가지 못할 뿐더러, 이 몬스트로 뱃속에 들어온 것이면, 무어고 나갈 수가 없단다. 그저 자꾸 들어오기만 하지.”

그러나 피노치오는 기운차게 말했습니다.

“되도록 해 봐야지요. 힘을 써 봐야지요. 해보고 해보아야지요.”

“그렇구말구. 이르다 뿐인가.”

찌미녀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피노치오가 외쳤습니다.

“올제 이제 알았다! 좋은 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제페토가 피노치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찌미녀도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오 찌미녀도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수라니 무슨 수란 말야?”

그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노치오는 제법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여기를 나가려면 몬스트로 입을 열어야만 된다는 것

알지?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수는, 몬스트로가 입을 열도록 하는 것이야. 나는 이제야 나의 입이 열리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

말을 다 하고나서 피노치오는 제페토를 두루 쳐다보았습니다. 쥐가토와 클레오와 찌미녀를 일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 부서진 배에다 불을 지르십시오. 그리고 배를 타고 몬스트로 아가리 쪽으로 바싹 저어갑니다. 불에서 오르는 연기가 몬스트로의 코



기어 오를 것이요. 그러면 전갈을 벌수 있다. 아가리를 열고야 말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배를 타고

나갈 차비를 하고 있다가, 고래란 놈이 제처를 할 하는 바람에, 슬쩍 밖으로 나가게 된단말이야. 이러면 우리는 바다에 나가는거요. 그 다음 야 육지로 뺄소니를 치면 되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제페토는 쓴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 놓기를 거들었습니다. 모두 협력하여 부서진 배에서 찾아낸 현 나뭇조각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나무를 늘다랗게 쌓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차비가 다 마련되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나무는 퉁퉁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꽃은 점점 커졌습니다. 불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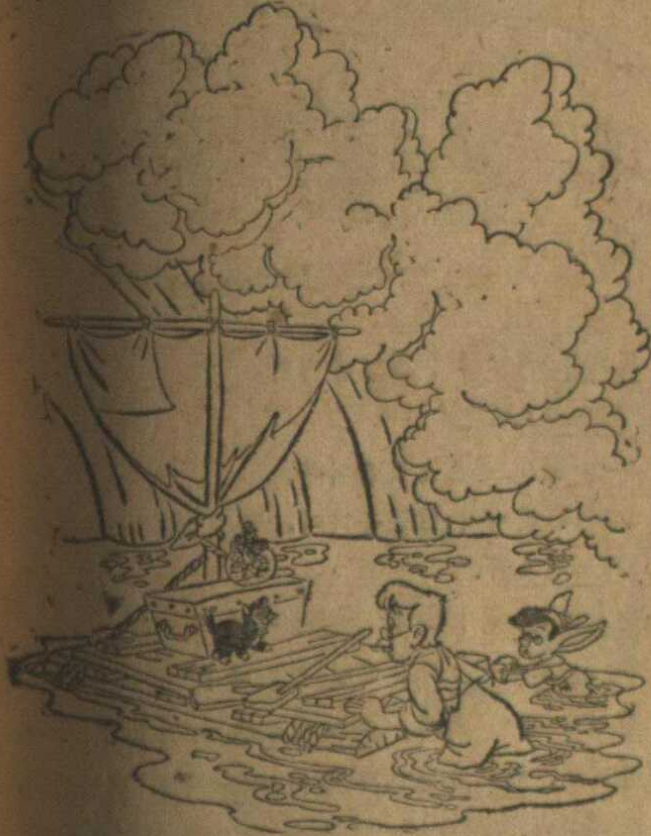
눈이 눈이 올라갔습니다.

불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연기는 위로 가아올랐습니다. 마침내 연기는 몬스트로의 코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어서 어서!”

피노치오는 악을 썼습니다.

“어서준 준비를 해야 돼요. 어서 떼에들 타요. 다 왔으면 노를 잡시다. 있는 힘을 다 해서!”



일행은 떼에 몸을 실고, 몬스트로의 입 앞으로 따라 대었습니다.

“자, 조용히!”

피노치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두들 멈추고 서서 침도 못 삼키었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기는 몬스트로의 코를 쓰았습니다.

몬스트로는 재채기가 났습니다. 예체! 이 순간 몬스트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다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고래는 서너 번 재채기를 하고나더니, 그 흉악한 눈에 떼의 모양이 떠있던 것입니다. 보니까 제페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 클레오와 뤼가르와 제미리도 있습니다.

고래는 지체 않고 그들의 뒤를 쫓으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힘있게 잡시다!”

피노치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저었습니다. 속기로써 저었습니다.

그러나 몬스트로는 해염이 선수입니다. 빠르게 쫓아옵니다. 거의 질릴듯 하였었습니다.

“불길하겠으니 이 노릇을 어찌느냐!”

제페로가 외쳤습니다. 이 때에도 몬스트로는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아주 바짝 쫓아와서는 아가리를 벌였습니다.

피노치오는 또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길하서는안 돼! 뛰세요, 이따지 뛰세요!”

이러자 고래의 아가리가 와락 크게 열리더니, 떼가 그대르 그 아가리에 훌쩍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찔은 안심하십시오. 피노치오는 떼 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노치오와 제페로와 클레오와 뤼가르는 모두 물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페로는 해염이라고는 등 치른 적이 없습니다. 피노치오는? 어려분, 피노치오가 나무로 만든 인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해염이야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피노치오는 제페로를 거들었습니다. 물 속에서 끌고 막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가만히만 저서요. 그럼 내 육지까지 오



서다 드릴게요.”

이 때에 몬스트로는 그들이 아직 제 뱃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고래는 다시 뛰를 쫓습니다.

피노치오도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색색한 피노치오는 한 팔로는 제페토를 붙들고, 한 팔로는 제 빠르게 물을 치며 헤엄쳐 달아났습니다.



물을 헤치고 헤치며 기운을 내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육지에까지 다달았습니다. 그러나 추근추근한 몬스트로는 여전히 가까이 쫓아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독자 여러분! 피노치오네 일행을 위하여 응원하여 주십시오.

잘 쳐라, 헤엄을! 잘 쳐라 헤엄을! 빨리! 빨리! 빨리!

몬스트로의 아가리가 다시 마악 크게 열리려 하였습니다. 이 때에 다시 한번 피노치오는 외쳤습니다.

“잡혀서는 안돼!”

피노치오는 바닷가를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저 바위 구멍 까지만 간다면!”

하고 피노치오는 생각했습니다.

헤엄치고 헤엄치고 헤엄쳤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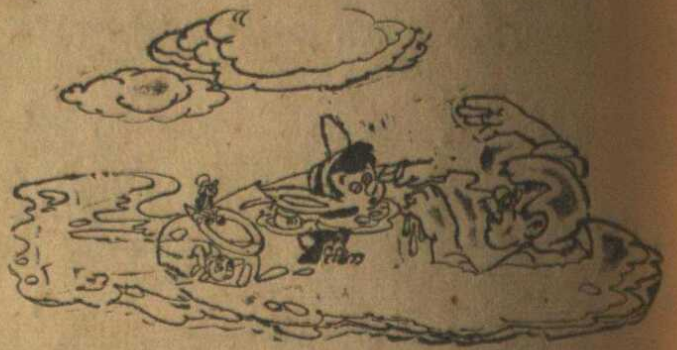
바위 구멍을 헤엄쳐, 피노치오는 제페토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마트면 붙잡을뻔한 몬스트로는 더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팡! 그 바위에 몬스트로가 부딪혔습니다. 구멍은 고래 몸통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았

습니다. 그리하여 그 속으로 기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12 사람이 된 피노치오

바다 물결이 한번 치더니 제페토를 육지로 끌어 올렸습니다. 인제는 살았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제페토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피노치오야!”

그는 크게 불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노치오야.”

제페토는 다시 크게 불렀습니다.”

“우리 피노치오야, 어딜 갔느냐?”

물결이 한번 치자, 피노치오를 육지로 끌어 올렸습니다. 제페토는 달려들어 피노치오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피노치오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피노치오는 마치 잠을 자는듯 하였습니다. 제페토가 그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그러나 피노치오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다시 한번 치자, 귀가





불 없이 올리고, 클레오와 찌미치를 끌어 붙였습니  
다.

제페토는 침승들을 보고 울상이 되어 말했습  
니다.

“이것 좀 봐라. 피노치오는 우리를 살려 주고,  
저는 죽어가고 있구나!”

제페토는 잘에다 가만히 피노치오를 껴안았습니  
다. 그리고 침으로 가져 가만히 귀었습니다.

슬프게 슬프게 제페토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만 세상을 떠나려는구나. 너는 우리를  
살리고 너는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렸구나!  
오오, 내 착하고 귀여운 피노치오야.”

이해합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  
이 생겼습니다. 광채 하나가 번  
뜻 하고 빛났습니다. 그 광  
채 속으로부터 푸른 선녀가  
나왔습니다.



“피노치오가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죽지 않았  
오. 차 보시오!”

그 푸른 선녀는 피노치오가 있는 쪽을 향해 걸  
어갔습니다.

처음에, 선녀는 나귀 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리자 나귀 귀는 어느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리고나서, 선녀는 나귀 꼬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꼬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뒤이어 선  
녀는 피노치오의 코와 눈과 입에 손을 대었습니다.

선녀가 만지니까 피노치오의 손은 이미 인형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그 코도 이미 인형의 코는 아  
니었습니다. 입도 이미 인형의 입은 아니었습니  
다. 아나, 피노치오는 이미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아이가 되  
어버린 것입니다.

푸른 선녀는

피노치오를 보  
며 방긋이 웃  
었습니다. 그  
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  
습니다.



“피노치오야, 너는 참 착했다. 너는 절절하고  
섹섹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정말 사람의 아  
이가 된거란다.”

피노치오는 벌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병글병글  
웃으며 제페토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제페토는 덤석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오오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정말 내 아들이로  
구나!”

그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러는 동안 귀뚜라미 찌미치는 모든 것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찌미치는 가만히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찌미  
치는 피노치오를 끝끝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그  
의 일은 끝난 것입니다. 피노치오는 사람의 아이가  
된 것이니까요.

조그만 마을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붕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는 아  
들이 생긴 것입니다. (끝)



# 떨어뜨린 돈주머니

유 한 숙

고려(高麗)도 다 지나간 어느 때, 충청도 어떤 마을에 일은 조금도 안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서생(書生)이 있었습니다. 밤이나 저두나 논어(論語) 맹자(孟子) 같은 것만 읽고 있었지요. 원래 잘 알지도 못하는 배다가 날마다 책만 읽고 있으니, 집안이 가난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 나중에는 세 번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이것 저것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도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혼자서 생각다 못해 어느 날 밤, 그 서생은 이웃집 어떤 부잣집 담을 넘어서, 주인이 깊이 간직해 둔 백방씩 넣은 돈주머니 다섯개를, 몰래 훔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세어보니, 웬일인지 돈주머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일경 드중에서 떨어 들었나보다? 집 근처에나 떨어졌으면 그

야말로 큰일인데...그렇다면 곧 알아챌 것이다. 빨리 날이 밝기 전에 찾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서생은, 즉시 밖으로 나가 지금 오던 길을 되짚어서, 이



리저리 두리번 거리며 다려 있는때까지 오자니까, 마침 거기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얼른 보기에든 가난뱅이 같은 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생이 허둥지둥 무엇을 찾으려는 것을 본 그 남자는

소리쳤습니다.

“어보시요. 당신은 무엇을 잃으신 것이 아니 십니까?”

“예, 조금 전에 가죽주머니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서생이 이렇게 대답하자, 주제가 누추한 그 남자는,

“이거요? 찾으시는 물건은, 금방 여기서 집었는네, 지금 그 주인

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올시다.”

하고 말하며 가죽주머니를 서생에게 내 주었습니다.

“에 에,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서생은 깊이 고맙다는 처사를 하고, 그 돈주머

니를 받았습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꼼꼼히 생각과 본즉, 자기의 행실이 서슴스럽게 남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는 더 구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얻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 주었는데, 하물어 자기는 가난한 생활을 하기는 하나, 뒤틀어진 집안에 태어나 아꼈던 저너으로 성인(聖人)의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은 하나니, 참 딱한 사상이로군.....

서생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못이겨, 밤이 새일 때까지 눈도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부잣집으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몇저녁에 백방정에서 돈을 훔쳐본 사람이올시다. 훔쳐서 가지고 가다가 다려져서 주머니를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집에 가서야 그것을 알고 되 돌아와 본즉, 주제가 아주 망칙한 사람이 그 주머니를 집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주머니는 제 손에 돌아 왔으나, 저는

배안리 부교회를 만나  
 그 사람을 보기에  
 나보다도 훨씬 살기가  
 이리운 모양 같았습니  
 다. 그러한 사람까지  
 그 남의 적에는 손을  
 대지 않는데, 저는 성  
 인(聖人)의 가르침  
 을 배우는 사람으로써  
 도둑질을 했습니다.  
 꾸어라고 사죄해야 할  
 손지 포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돈은 여기  
 모두 가져왔습니다.  
 언짢아 마시고 받아주  
 십시오. 그리고 지금  
 곧 나를 관청에 고소  
 해 주십시오.”  
 다섯개의 돈주머니를  
 거기 모두 내어놓고, 눈  
 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  
 했습니다. 그 주인은 진  
 심으로 잠들었습니다.  
 “얼은 것을 돌려주는

사람도 장라진 하지  
 만, 당신이야말로 그  
 에 지지않을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올시다.  
 당신이 한 일은 의탐  
 된 것임에 틀림 없으  
 나, 옳지 않은 것을  
 자각하여 도둑 가져온  
 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니 역시 당신  
 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란 알리  
 요.”  
 하고 칭찬하며, 돈주  
 머니 하나를 서슴지않  
 그 서생에게 내 주었습  
 니다. 그 후 서생은 아  
 주만 사람이 되어, 중  
 부는 물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하였던지만, 한  
 편 일도 성심으로도 많이  
 하여, 나중에는 그 근  
 방 마을에서 모르는 사  
 람이 없도록 훌륭한 사  
 람이 되었습니다.

(문) 처치박사 할아버  
 님 기체주 일향만강하옵  
 나이까? 한 가지 여주  
 어 보겠어요니, 대답해  
 주십시오. 모자는 모잔  
 비 쓰지도 못하고 가지  
 고 다닐 수도 없는 모자  
 가 무엇이겠어요나이까?  
 (서울 효제교 5의2  
 이 순환)



(답) 어머니와 아  
 님, 모(母) 자(子). (처  
 치박사)

(문) 처치박사 할아버  
 지 안녕하십니까? 문재  
 주시느라 그 동안 얼마  
 나 모셨는지? 어제  
 밤 꿈에 보니까 어디가  
 더 아프더군요. 자아 즐  
 비! 우리는 두루게 문  
 재 다리는 하나요, 키만  
 줄게 밧일이 관계, 다터



에는 수북히 털이 났습  
 니다. 무엇이겠어요? (중  
 남 천안 제3교 5년 중  
 성호)

(답) 시골서 찾아오느  
 라 애졌네. 내 몸을 다 꾸  
 었다니 신룡하군 그때.  
 풍나물아닌가? (처치박  
 사)

(문) 박사님 요사이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저렇게 땀을  
 흘리시는 것이지? 팔티  
 땀좀 씻으세요. 어디 딱  
 해서 물을 수가 있어야  
 죠. 금은 금인데 금아닌  
 금이 무엇입니까? (서  
 울 돈암교 5의3 윤 호  
 림)



(답) 쓸데없는 등정은  
 그만 두게. 더워서 나는

땀을 어찌 하란말야. 온  
 살 신경기두. 임금인가  
 능금인가? (처치박사)

(문) 안녕하십니까? 한  
 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배꼽을 따다가 이마에 붙  
 이고 올라가는 것이 무  
 었습니까? 바빠서 급히  
 가겠으니 얼른 대답해주  
 세요. (서울 종로 5가  
 123의2 박기덕)

(답) 자네 그동안 잘  
 있었나? 보고 싶거든  
 한번 찾아오지 뭐이 부  
 고려순가? 푸른 하늘  
 에 두둥실 연이 날으  
 네 그려. (처치박사)

(문) 할아버지 안녕하  
 십지? 그간 얼마나 모  
 생을 하셨습니까? 이제  
 는 누움이 길은 어뵈실

이 완습니다. 그럴 한문  
 제 내볼까요. 출지는 않  
 을때까 쳐 며칠까? 지  
 붕 위에 우산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대답하시면 머리가 툭힙  
 니다. (서울 경동 죽락  
 2년 조태환)

(답) 원제가 때머리  
 열려있네. 비젓이만 것  
 자네 먹어봤나? (처치  
 박사)

(문) 안녕 하십니까?  
 나이 어찌  
 다요 갈보  
 지 마십시오.  
 오. 하하!  
 처음이 뵈  
 기 그런지  
 소리며 뵈



아름이 눈떨떨하군요.  
 자아 시작합니다. 허허  
 며 단단히 불잡고 문재  
 주 주셔야지. 알두 걸버  
 뒤두 걸버, 돌아 경개 때  
 다지가 뵈힙가요? (서울  
 돈암교 5의3 황 홍순)

(답) 나보다 자네가  
 허허를 단단히 불잡어  
 야 하겠네. 밧일이란 것.  
 (처치박사)

# 소학생 작품

## 동요 금실비 은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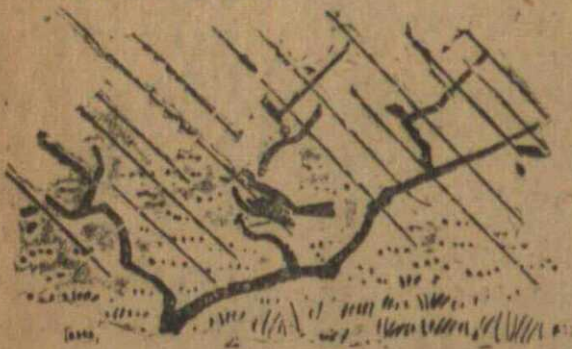
서울 방산 국민 학교 4학년

김 성 천

봄에 오는 이슬비는  
금실비 은실비,

논이랑 밭이랑  
고요히 오고요,

새싹이 파아란  
잔디에도 옵니다.



## 동요 보 리

경북 영양군 일월 국민 학교 1년

이 유 회

보리야  
보리야  
어서어서 익어라,

나물 죽 그만 먹게  
아침 죽 그만 먹게.

### ☆동요를 뽑고 나서☆

박 영 중

#### “금실비 은실비”

봄 들에 오는 이슬비의 아득한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비”라는 동시에도

비는  
아무데나  
오고 있다.

여기서는  
내 우산 위에 오고,  
저기는  
백 위에 내리고 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일부러 글을 꾸미려 들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비가 오고 있는 아득한 것을 느끼게 되지요. 금실비 은실비에도 봄 들에 내리는 그 비 오는 날의 아득함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 끝칠 새싹이 파아란 잔디에도 옵니다. 아득한 것을 느끼게 하는 원인입니다..

#### “보 리”

여러분의 이처럼 꾸밈없는 소원도 시가 됩니다. “보리”는 내가 조금 손을 대었습니다.

파릇파릇 보리야  
어서어서 익어라.  
한 것을 파릇파릇을 지웠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차장해기보며, 저기의 생각을 좀 더 진실되게 나타내도록 예를 씁시다.

#### “브름달”

이것은 새로운 맛이 모자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끝칠 달님이 왜 구름 속에 숨나는, 그 귀여운 외관(外貌)이 재미 나서 뽑았습니다.

#### “봄”

수양버들 기쁘려고  
눈물 흘려버.  
는 표현은 모자라면서 참된 느낌을 가진 듯해서 뽑았습니다. 봄에 오는 날 들에는 새싹이 파아란, 수양버들 기지마가 빛깔이 빛깔 모양을 인물은 기쁘게 눈물 흘려가고 느꼈습니다.

동요 보름달

오산 성호 국립 학교 5년

김 준 호

보름달은

수가 볼까와

볼래 드지요.

보름달은

무엇이 부끄러워

구름에 숨나.



동요 봄

서울 동대문 국민 학교 4의2

이 강 열

봄이 왔네

새파란 봄이 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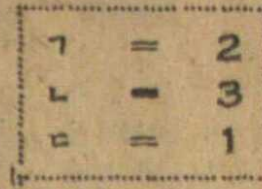
수양버들 기쁘다고

눈물 흘리네.



★ 5월치 상타기 발표 ★

바른 대답과 뽑힌 분



1등 10명

- |                  |                    |
|------------------|--------------------|
| 박 형현 (경기 진동교 6년) | 김 원희 (서울 이태원교 4년)  |
| 김 송옥 (서울 덕수교 5년) | 오 조과 (서울 북성교 5년)   |
| 강 경옥 (서울 봉래교 3년) | 김 요은 (서울 재동교 4년)   |
| 윤 경숙 (서울 창신교 5년) | 정 태영 (서울 안산교 5년)   |
| 서 수현 (마산 회원교 5년) | 윤 영구 (서울 광희교 3년)   |
| 신 환준 (서울 마포교 4년) | 이 창우 (서울 용강교 4년)   |
| 김 한기 (경매 서란교 5년) | 김 준자 (서울 서명교교 4년)  |
| 김 영구 (서울 우신교 5년) | 강 창제 (서울 삼청교 5년)   |
| 정 순원 (서울 남산교 4년) | 김 창환 (서울 영희교 5년)   |
| 고 기운 (서울 효제교 4년) | 최 영길 (서울 사범부속교 3년) |
|                  | 유 차림 (서울 일신교 6년)   |
|                  | 김 정용 (서울 돈암교 4년)   |
|                  | 김 주민 (서울 광덕교 4년)   |

2등 40명

- |                   |                    |
|-------------------|--------------------|
| 황 우영 (서울 효창교 5년)  | 성 정애 (서울 창신교 5년)   |
| 이 광모 (서울 박실교 5년)  | 어 정구 (서울 동대문교 2년)  |
| 권 원표 (서울 삼광교 5년)  | 함 정용 (서울 상업교 5년)   |
| 이 유남 (충남 할미교 6년)  | 계 애자 (서울 중앙교 4년)   |
| 홍 성근 (수원 세교교 6년)  | 구 문수 (서울 매동교 2년)   |
| 조 성옥 (서울 남정교 5년)  | 조 관호 (서울 해화교 5년)   |
| 박 성우 (동명 월운교 5년)  | 염 흥정 (서울 소외교 5년)   |
| 홍 영표 (서울 성북교 6년)  | 신 성림 (서울 정계교 6년)   |
| 송 영달 (서울 창천교 5년)  | 한 흥관 (서울 영운교 5년)   |
| 최 말림 (부산 동신교 6년)  | 최 재용 (서울 서대문교 4년)  |
| 김 요란 (서울 한남교 5년)  |                    |
| 한 근석 (양주 금곡교 4년)  | 서울 삼성학원 5학년이 다니는   |
| 김 학자 (개성 고려교 3년)  | 는 김 현준군에게, 주소불명 (住 |
| 원 정자 (경기 여주교 4년)  | 所不明)으로 4월치 상품이 도   |
| 이 정기 (서울 남대문교 4년) | 로 왔으니, 속히 '순화생 권원  |
| 한 상수 (서울 강죽교 5년)  | 부'로 오실사함.          |
| 할 호중 (서울 관곡교 4년)  |                    |

☆ \* ☆  
\* \* \*

▲2학년 우리 동무  
들에게. 요사이엔 날  
씨가 아주 더워졌습  
니다. 서울 학교에  
다니시는 2학년 동  
무들 몸 튼튼히 섹

섹하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우  
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서  
도 짓습니다. 서울은 지금 모실  
기에 한창입니다. 서울 계신 동  
무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으며  
“소학생” 애독자가 한번 같이 모  
여 놀았으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새나라의 훌륭한 일꾼  
이 됩시다. (경북 선산 장천 국  
민교 2년 박 태선)

▲저는 충남 부여 국민학교 6  
의 1반에 있는 설 상기울시다.  
“소학생”을 컬러주지는 여러 선생  
님, 푸른 하늘에 종달새 높이 떠  
우는 6월을 기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소학생”을  
자보았는데, 중간에 구할질 못하  
여 못보다가, 지난 3월에 아버  
지가 서울가시는 편에 65호를 사  
오시라고 부탁하여 보았습니다.  
그 후 또 5월에 서울을 가지게  
되어, “소학생” 광고가 신문에도  
나고 하여, 4월치와 5월치를 사  
오시기를 부탁하였으나, 막상 오

# 소학생 권말부

간 심심하지 않  
아요. 유티가 보  
내 사람이 장동  
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요. 박 태원 선

시고 보니, 5월치 한권만 사오  
셨군요. 바라던 소원이 끊어져  
고만 한없이 영영 울었답니다.  
여기서도 사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가지 물어볼 말씀  
은 상타기 문제의 답을 써 보내어  
1등을 하면, 발표하기 전에 상  
품을 줍니까? 뒤에 줍니까? 그  
러면 이 다음에 또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바라며 분을 놓겠습니  
다. (충남 부여 국민교 6의 1  
설 상기)

▲상품은 발표한 후에 우편으  
로 부쳐드립니다. “소학생”을 정  
사보기가 어려우시면, 책값 100  
원과 송로 20원을, 다달이 소위  
체로 하여 본사로 보내주시면 꼭  
부쳐드립니다. (기자)

▲초여름 시원한 바람이 빵을  
스치고 녹음도 질어가는 이때,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는 과학에 취미가 있음으로 “사다  
다리 위의 토빈”은 재미있게 읽  
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읽  
던 “소년잡국지”가 끊어져서 여

생님의 재밌는 다른 소설을 내주  
시든지, “소년잡국지”를 계속해  
주세요. (서울 남산 국민교 4의  
1 정 순원)

▲9월치부터 재밌는 새 소설  
을 박 태원 선생님이 써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십시오. (기자)

▲이제 봄도 어느덧 가고 초여  
름이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달 “소학  
생”을 읽을 때마다,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맛봅니다. 그 중  
에도 박 영중 선생님의 “동요 맛  
보기”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저는 중학생으로, 동무들은 유치  
스럽게 “소학생”을 본다고 놀리지  
마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종  
페이지 수를 늘렸으면? 그럼 안  
녕히 계십시오. (서울 경기 중학  
교 1년 엄 창섭)

▲그처럼 “소학생”을 사랑해 주  
시니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이번  
에 4페이지가 늘었고, 다음부커  
도 차차 늘일 계획입니다.



“소학생”은 더없이 독자가 늘었고 나  
오는 그날로 동어나는데, 그것은 독자 여  
러분이다. “소학생”은 정말 좋은 잡지는 것  
을 깨닫게 된 까닭이라 생각할때 잡지를 꾸  
미고 있는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기쁨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달치부터 4페이지 색이나 더 늘리기로했  
으며, 앞으로는 내용도 더욱 새롭게 꾸미  
려하니 많이 기대하시라. (설 은경)

★어느덧 애미가 망망평 들은 나뭇가지  
에 울고, 사할한 나뭇그늘이 그늘어지는 여  
름이 찾아왔습니다. 동무들 그동안 안녕하  
셨습니까? 7월이란 동무들께 한장 바깥  
시골이시요? 오랫동안 정든 여러 언니와

아우들과 작별했는가 하면, 6년 동안 길  
이 정든 학교와 선생님을 떠나, 실사회로  
또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는, 정  
말 바깥 달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남으신  
동무들에게는, 산으로 바개로 들로, 마음껏  
울겁게 쉼을 허용하기를 앞둔, 들서 가다  
려지는 메이기도 하지요? 옛날에 “구슬이  
새말이라도 깨야 구슬이다”라는 말이 있  
는데, 동무들은 이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 진정 그것이 구슬이라면야, 깨어있던  
안있던 간에 구슬일 것은 흔들렸는 사실  
이 아닐까요? 생각만 씩씩하고 바르고 굳  
뚝하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주  
위 환경이 바뀌었던 생각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신체나 정신이 함께 보호수는 있  
어도, 퇴보(退步)나 일대만 잃을것이라고  
믿습니다. “소학생” 애독자 여러분! 사회  
로 나아가시는 거대한 언니 오빠들의, 평  
복과 성공을 기원과 같이 발기토 합시다.  
끝으로 당선 약속을 하느라고 유익한 “여  
두신 이야기”를 못읽은 것을, 흥 중인선생  
님과 독자들에게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박)

4282年 7月 1日發行  
소학생 • 값 100 원  
7월치 ★ 제 69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尹石重

發行所 見協  
4280年 9月 30日 發售 52455  
서울 鐘路 2街 82 永興堂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鐘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

3970 원  
0187 원  
3492 원  
3389 원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0年 9月 31日 印刷 5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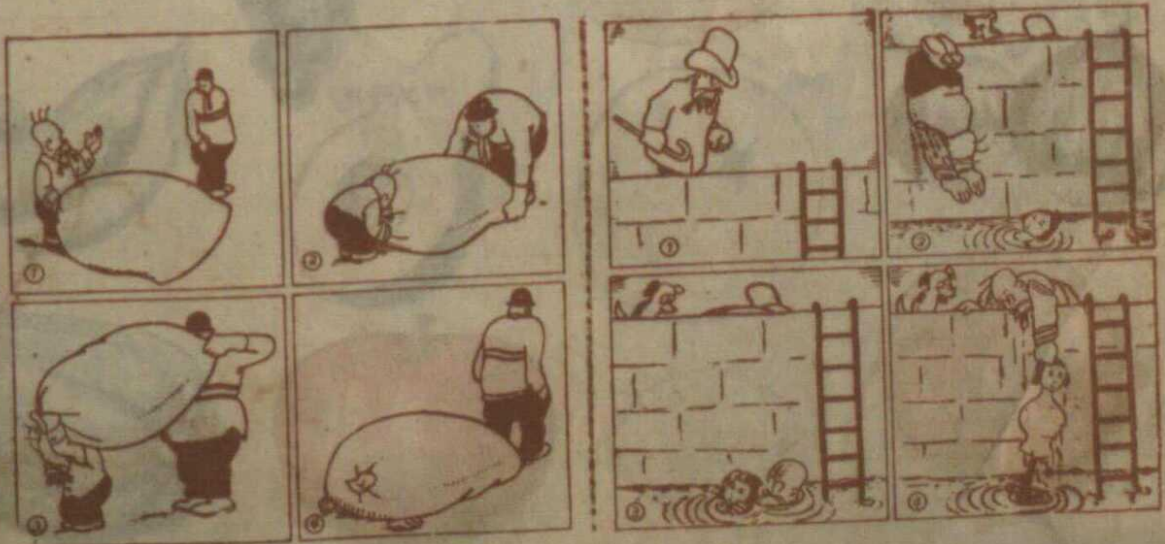
★ 許可 證號 第135號 ★ 許可 日字 4278年 7月 5日 ★ 第3種 郵便物 許可 日字 4278年 4月 22日 ★

# 경주



윤초그림

★ 아담손할아버지 ★



# 그림 백과사전 ⑫

여러 가지 열매  
(설명 39 페이지에)

